# 定慧社

불기 2550년 겨울| 제34호

**교수논단** 승가와 승보, 그리고 승단 혹은 교단의 문제
**정혜탐방** 송광사 천자암 조실 신광활안神光活眼스님
**특별취재** 한국불교의 미래 어린이법회를 찾아서
**학인기고** 「인명입정리론因明入正理論」으로 본 불교논리학의 기본적 이해

송광사 전통강원

*조계의 물소리*

# 頭陀 두타

출가자로서 수행의 시작은 삶을 꾸려 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욕심을 벗어나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시 말해서, 의식주를 가능케 하는 물질에 대한 탐욕과 집착을 벗어나야만 이상적인 수행의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탐진치貪嗔痴라고 하는 삼독심을 여의는데 두타 수행이 중요한 방편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탐욕을 털어내는 두타행을 실천해 나가다 보면 계율을 더욱 청정하게 수지하는 터전이 마련되고, 계율은 선정삼매禪定三昧에 몰입하는 바탕이 되며, 선정은 곧 지혜를 증득하는 지름길이기에 결국 두타행은 정각을 이루는 근본인 것이다. 그러므로 고래古來로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증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두타행이라고 했다.

두타란 산스크리트 'dhuta(버리다·씻다·닦다 등의 뜻)'의 음역으로서 두다杜多로도 쓰며, 기제棄除 또는 수치修治로 번역한다. 곧 인간의 모든 집착과 번뇌를 버리고 심신을 수련하는 것을 말한다. 두타행의 방법에는 12, 13, 16, 25조條 등의 행법이 있는데, 한국 불교에서는 12두타행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것은 세속을 등지고 깊은 산속 등에서 산다(在阿蘭苦處), 늘 걸식을 한다(常行乞食), 빈부를 가리지 않고 차례대로 걸식한다, 하루 한 끼만 먹는다(受一食法), 절식을 한다(節量食), 오후가 되면 음료나 당분류를 섭취 않는다(中後不得飮漿), 헌옷을 기워 입는다(着弊衲衣), 중의重衣·상의上衣·내의內衣 외에 옷을 갖지 않는다(但三衣), 무상관無常觀을 닦기 위해 무덤 곁에서 산다(塚間住), 쉴 때는 나무 밑을 택한다(樹下止), 나무 아래서 자면 습기와 독충 등의 폐해가 있으므로 한데에 앉는다(露地坐), 앉기만 하고 드러눕지 않는다(但坐不臥) 등이다. 이러한 두타행은 인도의 사문수행에서 시작되었다. 신분계급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든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수행했던 사문 수행자들은 나무 아래 돌 위에서의 생활을 출가의 시발점으로 삼았다. 부처님께서도 출가 당시부터 이들의 전통을 계승하여 분소의糞掃衣를 입으면서 수행을 시작했으며, 이후 교단이 구성됨에 따라 두타행의 이념과 취지가 하나의 수행방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두타행의 제 일인자는 가섭존자였다. 부처님은 좋은 가사를 입고 있는 마하가섭존자가 두타행 수행에 어울린다는 사실을 아시고 당신의 남루한 가사와 바꾸었다. 이 가사를 교환한 일은 선종에서 말하는 의발을 전수했다기보다는 가섭존자에게 알맞은 수행법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가섭존자는 아라한이 된 후에도 철저한 두타행을 실천했으며,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의 검소한 삶은 출가 수행자의 지표가 되었다. 이러한 두타행은 고행을 견디는 행위보다 수행자의 자각적인 몸가짐을 더 중시하는 생활방법을 취했음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는 풍요와 진보의 시대에 출가를 선택했다. 자칫 출가의 본분을 망각할 수도 있을 만큼 풍족해진 수행 환경이 갖추어졌기에 두타행은 오히려 시대상황에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당연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혜명을 잇는다는 출가자의 본분을 생각한다면 조금 지나치다 싶더라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듯하다. 출가자 자신이 스스로 시대에 맞는, 그러나 두타행의 근본을 망실하지 않으려는 본연으로 수행에 임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 定慧社

불기 2550년 겨울호 | 통권 제34호

2 **사진 속 이야기**

4 **방장스님 법어**

병술년 동안거 결제 법문 | 범일 보성

6 **교수논단**

승가와 승보, 그리고 승단 혹은 교단의 문제 | 원경

14 **기획연재 2 - 송광사 벽화의 세계**

대웅보전의 벽화 2

18 **지대방 이야기**

지난 행자 시절 | 향성

송편 울력 | 석원

도성당 비누 | 도휴

그 때를 아시겠죠 | 두윤

22 **정혜탐방**

송광사 천자암 조실 신광활안神光活眼스님

28 **목우만평**

방하착 | 상국

30 **목우단상**

나날이 즐거운 불교공부 | 덕인

수석정 | 능엄

32 **특별취재**

한국불교의 미래 어린이법회를 찾아서

36 **바람소리 한 자락**

마지막 선물 | 본행

학인의 외출 | 시관

상생죽필문 | 혜소

40 **경전 한 구절**

집착

41 **詩가 있는 풍경**

돌탑 | 자용

겨울 산골 | 종관

43 **학인기고**

「인명입정리론因明入正理論」으로 본

불교논리학의 기본적 이해 | 혜도

52 **화보와 소식**

화보로 보는 강원 소식

55 **소년소녀가장 후원안내**

56 **강원 후원내역·편집후기**

송광사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내려 눈이 한가득이지만
우리 모두 한마음 되어
도량 내에 길을 냅니다.
우리가 하나되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송광사 강원 화이팅!

글·사진 | 편집실

발행처 | 송광사 강원
발행인 | 현진(강주)
편집인 | 능혜(입승)
편집장 | 혜도
편집 | 지륜 · 혜연
사진 | 지륜

발행일 | 불기 2551년(서기 2007) 2월 27일
주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전화 | 061) 755-5302
인쇄 | 부다기획 062) 225-8825

禪和求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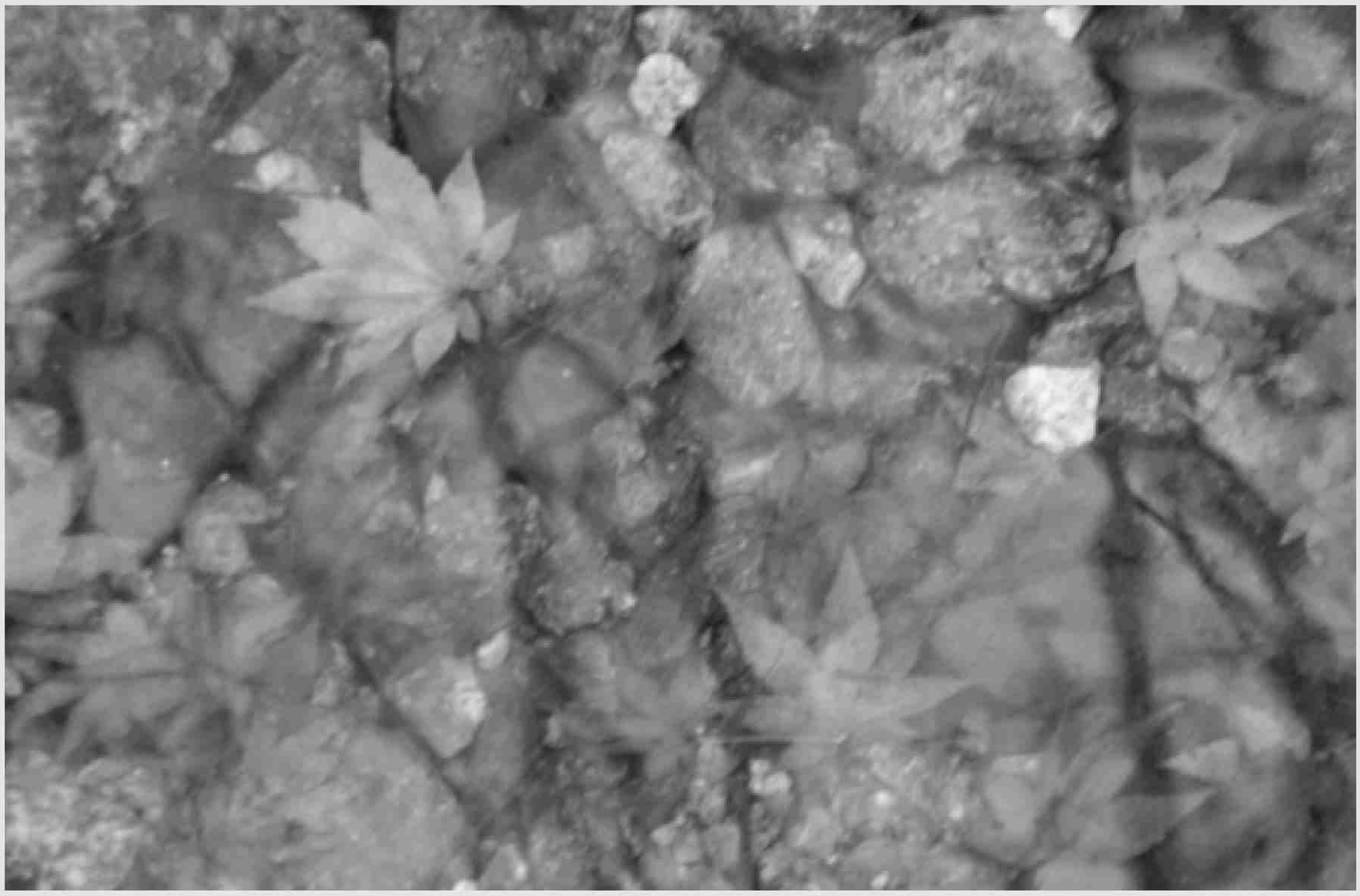
春早梅花發

秋深野菊開

欲說箇中事

浮雲空去來

선시禪詩 | 부휴선사浮休禪師·사진 | 편집실



"한 선사에게
이른 봄에는 매화가 피고
깊은 가을에는 들국화가 피네
그 가운데 일을 말하라 한다면
뜬 구름은 부질없이 오간다 하리."

선수(善修, 부휴, 1543~1615) 조선 중기의 고승
속성 김金, 이름 선수善修, 호 부휴浮休, 남원출신.

*방장스님 법어*

# 병술년丙戌年 동안거 결제 법문法門

범일 보성 | 조계총림 방장

대중이 내 공부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원해여래 진실의(여래의 진실한 뜻을 깨닫기 원하나이다)' 라는 서원을 되풀이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이 공부는 충신과 효자와 열녀라야 할 수 있습니다. 충신과 효자와 열녀가 아니면 흉내도 낼 수 없는 게 이 공부입니다.
여러분은 일등 출가자들입니다. 여래의 공부를 하기 위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모임에 참여한 이상, 일체의 다른 생각이 없이 공부를 지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 버리십시오.
지극히 쉴 대로 쉬어서 조금도 남김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철저히 쉰 사람은 올 겨울 한철을 나는 동안 그저 해주는 대로 먹고 낮잠을 자든 무얼 하든 자유자재로 멋지게 한바탕 지어갈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이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내내 허둥지둥 헤맬 것입니다.

눈 펄펄 내리고 방 뜨뜻한 곳에서 대장부 살림을 도모해가는 일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음식 갖춰서 잘 잡수고 기운을 모아서 한 번 호쾌하게 꾸려가 보십시다.
그래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선방에서 나와 보도록 하십시다.
구참스님네들은 일거수 일투족에 모범이 되고 신참 스님들은 윗분들을 잘 따르는 수선사의 기풍을 살려 좋은 불과를 얻도록 노력하십시다.

정진하는 선객들은 대중이 내 공부를 다 해준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한 생각을 갖추신 분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대중에게 은덕을 돌리는 자세는 얼마나 훌륭한 마음가짐입니까.
여러분, 대중이 내 공부를 다 해준다는 생각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화합하고 하심하는 자세를 가진 분은 내가 협조를 해 대중의 공부를 다 이루게 하겠다는 마음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공부가 익지 않겠습니까.

공부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혜있고 힘 있을 때 투철하게 밀고 가야 합니다.
이 산승도 아직 못다 이룬 공부를 할 마음은 있으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는 데까지는 해보자며 나름대로 노력하는 정도이지요. 여러분의 뒷바라지를 할 여력은 남아 있으니 다른 걱정 말고 열심히 정진해 주세요. 이 일뿐이다! 하는 한 생각만을 붙들고 힘차게 밀고 가십시다. 定慧社

# 승가와 승보, 그리고 승단 혹은 교단의 문제

원경元鏡 | 松廣寺講院 學監
ekayanawk@hanmail.net

1. 문제의 제기
2. 승가와 승보의 동의점
3. 승단과 교단의 관계
4. 결론

## 1. 문제의 제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 그 지식이 추상적인 관념의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념은 자연히 몰이해를 넘어 새로운 오해를 만들어 내게 마련이다. 더구나 그 의미가 비슷한듯 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일 때는 그것을 그릇되게 사용함으로써 엄청난 과실을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다루게 될 僧伽와 僧寶의 문제, 그리고 僧團과 敎團의 문제도 이러한 의식에서 출발한다고 하겠다.

승가와 승보는 동일한가, 그렇지 않은가. 간혹 어떤 공식적인 세미나 석상에서 어느 재가불자가 요즈음 우리 사회에 존경할만한 스님이 없기 때문에 법회의식 때 3귀의가 아닌 2귀의를 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몇 번 들은 적이 있다. 한 때 꽤 유명한 어떤 불교학자도 3귀의가 아닌 在家衆을 포함한 4귀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대부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억지 주장들은 왜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 물론 요즈음 출가한 스님들이 如法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는 그 나름대로의 질책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승가와 승보에 대한 개념의 혼란으로 인하여 생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어떤 특정 비구 한 사람은 승가도 아니고 승보도 아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비구가 4인 이상이 모이면 승가가 형성되게 된다. 그러나 만일 출가한 비구들이 250계를 수지하고 포살을 잘 행하며 수행한다면 이들을 모두 승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승가가 곧 승보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일까.

승단과 교단은 동일한가,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인가. 요즈음 재가불자들이 승단의 일에 간여하려는 의도에 대하여, 과연 재자불자들은 불교교단 안에서 어떤 역할과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일까. 비록 불교교

단은 4부대중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재가2부중이 승단의 일에 대해 어떤 실제적인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는 아니다. 재가2부중이 불교교단의 한 주체이기는 해도 승단의 구성원 또는 주체가 아니라면 승단의 일에 간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불교교단과 승단은 과연 어떤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 우선 경전에서 승가와 승보의 개념을 살펴보고 나서 이 두 개념의 동이점이 분명히 밝혀진다면 일반인의 승가와 승보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본다. 다음의 문제인 승단과 교단의 문제에 대해서도 석존의 본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었던 원시불교교단 안에서 출가와 재가의 관계를 경전의 내용을 통해 분명히 규명함으로서 현재 우리 불교교단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열어볼까 한다.

## 2. 승가와 승보의 동이점

僧寶에 대한 개념을 우선 경전에서 살펴보면 『과거현재인과경』 권 제3에서

> 이 세간에는 비로소 여섯 명의 아라한이 존재하게 되었으니 佛아라한은 바로 佛寶가 되고, 4성제법륜은 法寶가 되며, 5아라한은 바로 僧寶가 된다. 이와 같이 세간에 삼보가 구족되었으니 여러 천인의 제일 복전이라 하겠다.[1]

라고 하였다. 석존께서는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최초로 녹야원에서 다섯 명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최초로 법륜을 굴리셨다. 이 때 다섯 명의 제자들이 차례로 석존의 법을 깨달아 아라한과를 증득하였을 때 비로소 실제적인 불교의 교단은 시작된 것이다. 바로 이 다섯 명의 아라한들은 3보 가운데 승보를 구성하는 첫 번째 主體가 된 것이다.

다시 석존께서는 『잡아함경』에서 석존의 제자〔僧〕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세존의 제자는 옳게 향하고〔善向〕, 바르게 향하며〔正向〕, 곧게 향하고〔直向〕, 성실하게 향하여〔誠向〕 그 행이 법에 수순하고 있다. 즉 수다원을 향하고 수다원을 성취하며, 사다함을 향하고 사다함을 성취하며, 아나함을 향하고 아나함을 성취하며, 아라한을 향하고 아라한을 성취한다. 바로 이 4쌍8배의 賢聖이 세존의 제자인 '승'이라고 이름한다. 〈그들은〉 청정한 계를 구족하고, 삼매를 구족하며, 지혜를 구족하고, 해탈을 구족하며, 해탈지견을 구족하였기에 반드시 받들어〔奉迎〕 모시고〔承事〕 공양할만한 좋은 복전이라고 하겠다.[2]

위의 경에서는 석존의 제자를 '승'이라고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들은 4쌍8배로써 聖位에 들어갔으며 5분법신향을 구족하였기에 세간의 福田이 된다는 것이다. 앞의 『인과경』에서는 다섯 명의 아라한을 '승보'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의 경에서는 '승'이라는 용어로서 제자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경전에서는 '승보' 또는 '승'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그 용례를 더 살펴보겠다. 『잡아함경』 권 제9에서는 僧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탐욕·진애와 어리석음은 세간의 3독이다. 이와 같은 3독의 번뇌〔惡〕를 영원히 제거하신 분을 불보라고 이름하고, 법보는 여러 3독 번뇌를 소멸하는 방법을 설한 것이며, 승보는 다시는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음〔無餘〕을 가리킨다.[3]"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승보는 3독 번뇌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아라한의 경지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중아함경』 권 제6에

---

1) 『인과경』(大正藏 3, p.645 상) 於是世間。始有六阿羅漢。佛阿羅漢。是爲佛寶。四諦法輪。是爲法寶。五阿羅漢。是爲僧寶。如是世間三寶具足。爲諸天人。第一福田

2) 『잡아함경』권제33(大正藏 2, p.231 상) 世尊弟子善向. 正向. 直向. 誠向。行隨順法。有向須陀洹. 得須陀洹。向斯陀含. 得斯陀含。向阿那含. 得阿那含。向阿羅漢. 得阿羅漢。此是四雙八輩賢聖。是名世尊弟子僧。淨戒具足. 三昧具足. 智慧具足. 解脫具足. 解脫知見具足。所應奉迎。承事供養。爲良福田

3) 『잡아함경』권제9(大正藏,p.61 중)貪欲瞋恚癡。世間之三毒。如此三毒惡。永除名佛寶。法寶滅衆毒。僧寶亦無餘

'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석종자가 있으니 석가족의 종족을 버리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를 수하고 지극한 믿음으로 집을 버리고 집이 없이 도를 배워 무상정득각을 얻었으니 이를 불이라고 한다. —어떤 것을 衆이라고 하는가. 이 때 그 장자는 다시 나에게 대답하였다. 약간의 姓과 이름이 다른 종족이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를 입고 지극한 신심으로 집을 버리고 집이 없이 부처님을 따라 도를 배우니 이를 일러 '衆'이라고 한다.[4]

위의 경에서는 부처님의 모든 제자들을 '중'이라고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앞의 『잡아함경』에서 정의한 '승'의 개념과 위의 『중아함경』에서 밝힌 '衆'은 같은 개념이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밝힌 것만으로는 여전히 '승보'와 '승가'에 대한 구분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승보에 대한 개념과 승가에 대한 개념을 각각 구분하여 탐구해보겠다.

'승' 또는 '중'은 출가한 비구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승'이나 '중'은 상가[saṅgha]라는 말의 중국어 번역이다. 『사분율』에서는 "名字비구, 相似비구, 自稱비구, 善來비구, 乞求비구, 着割截衣비구, 破結使비구, 受大戒白四羯磨如法成就得處所비구가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비구가 만일 대계를 받고 백사갈마를 여법하게 성취하고 처소를 얻어 비구법 가운데 머무는 바로 이것이 비구의 의미"라는 것이다.[5]

『십송율』에서는 다섯 가지 종류의 승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6], 『마하승기율』에서는 여덟 가지 종류의 승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7] 위의 두 율전에서는 僧의 종류에 대한 분류로써 이를 통해서는 승가의 개념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승가는 집단을 의미하는 용어인데 어느 정도의 인원을 승가라고 할까. 그런데 『구사론기』에 보면 승가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보인다. 즉 "4인 이상을 이름하여 '승가'라고 한다"[8]고 설하고 있다.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기에 4명을 승가 구성의 최소 단위로 삼은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4분율』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나타난다.

"만일 〈갈마를 할 경우〉 반드시 4인이 갈마를 해야 한다. 〈만일〉 네 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갈마를 한다면 이는 법이 아니며 비니갈마가 아니다."[9] 그렇다면 바로 갈마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인원이 4인의 비구이기 때문에 4인 이상을 승가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인적 구성의 내용적 측면에서 승가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다. 위에서 이미 『십송율』과 『마하승기율』에 나타난 승의 분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것을 다시 분류하고 다른 용례들을 첨가하여 분석해 보면

- 『십송율』; 무참괴승無慚愧僧, 누양승羼羊僧, 별중승別衆僧, 청정승淸淨僧, 진실승眞實僧
- 『마하승기율』; 비구승比丘僧, 비구니승比丘尼僧, 객승客僧, 거승去僧, 구주승舊住僧, 안거승安居僧, 화합승和合僧, 불화합승不和合僧
- 『4분율』; 비구승比丘僧, 비구니승比丘尼僧, 이부승二部僧, 사방승

---

4) 『중아함경』권제6(大正藏 1, pp.459 상~460 상) 有釋種子捨釋宗族。剃除鬚髮。著袈裟衣。至信. 捨家. 無家. 學道。得無上等正覺。是名爲佛。— 何名爲衆。時。彼長者復答我曰。有若干姓異名族。剃除鬚髮。著袈裟衣。至信. 捨家. 無家。從佛學道。是名爲衆。此佛及衆.

5) 『사분율』권제1(大正藏 22, p.571 상) 若比丘者。名字比丘。相似比丘。自稱比丘。善來比丘。乞求比丘。著割截衣比丘。破結使比丘。受大戒白四羯磨如法成就得處所比丘。是中比丘。若受大戒白四羯磨如法成就得處所。住比丘法中。是謂比丘義。

6) 『십송율』권제30(大正藏 23, p.220 상)有五種僧。一者無慚愧僧。二者羼羊僧。三者別衆僧 四者淸淨僧。五者眞實僧

7) 『마하승기율』권제10(大正藏 22, p.324 중) 僧者八種比丘僧。比丘尼僧。客僧。去僧。舊住僧。安居僧。和合僧不和合僧

8) 『구사론기』권제14(大正藏 41, p.222 중) 四人已上名曰僧伽

9) 『4분율』권제44(大正藏 22, p.886 중) 若應四人羯磨。四人少一人作羯磨者。非法非毘尼慚磨

승가는 바로 승보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승가는 곧 승보일수도 있고, 승가 중에서 일부가 승보에 속한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승가의 본래 의미나 정신에 따라 화합과 청정한 수행을 견지하고 있다면 승가가 곧 승보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겠지만 승가를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승가가 곧 그대로 승보가 아님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

四方僧, 계내승界內僧, 동갈마승同羯磨僧[10)]

- 『비니모경』 ; 범부승凡夫僧, 성인승聖人僧, 참괴승慚愧僧, 무참괴승無慚愧僧[11)]
- 『5분율』 ; 4비구승四比丘僧, 5비구승五比丘僧, 십비구승十比丘僧, 이십비구승二十比丘僧, 무량비구승無量比丘僧[12)]
- 『근본살바다부율섭』 ; 4인승가四人僧伽, 과차승가過此僧伽, 현전승가現前僧伽, 4방승가四方僧伽, 주승가主僧伽, 객승가客僧伽[13)]
- 『근본살바다부율섭』 ; 무치승가無恥僧伽, 유치승가有恥僧伽, 치무치승가恥無恥僧伽, 순리승가順理僧伽, 비리승가非理僧伽, 리비리승가理非理僧伽, 미탈승가未脫僧伽, 이탈승가已脫僧伽, 탈미탈승가脫未脫僧伽[14)]

이상의 자료들을 근거로 승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체적으로 초기 교단에서 승가는 비구승가와 비구니승가의 출가 2부중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단지 개인 비구, 비구니가 아닌 4인 이상의 비구, 비구니가 모여 화합을 지향하며 수행해 나가는 모임이라고 하겠다. 출가교단은 비록 5부중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비구승가와 비구니승가를 제외한 나머지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가 승가의 구성원이라는 언급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 승가는 바로 승보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승가는 곧 승보일수도 있고, 승가 중에서 일부가 승보에 속한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승가의 본래 의미나 정신에 따라 화합과 청정한 수행을 견지하고 있다면 승가가 곧 승보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겠지만 승가를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승가가 곧 그대로 승보가 아님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 승가를 구분하고 있는 것 가운데 『사분율』의 受大戒白四羯磨如法成就得處所비구, 『십송율』의 청정승淸淨僧, 진실승眞實僧과 『마하승기율』 화합승和合僧과 『비니모경』의 성인승聖人僧 등이 비구승가와 비구니승가 가운데 속하면서 일정한 경지의 수행을 성취한다면 승가가 곧 승보에 해당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승불교의 자료에서도 승가가 곧 승보가 아니라 일정한 출가인 가운데 어느 정도 수행이 성취되어야 승보에 속한다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가지 沙門果가 없기 때문에 4향이나 4과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여덟 가지 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10) 『4분율』권제41(大正藏 22, p.865 하) 若與比丘僧。若與比丘尼僧。若與二部僧。若與四方僧。若與界內僧。若與同羯磨僧
11) 『비니모경』권제69(大正藏 24, p.834 중) 復有四衆僧。一凡夫僧。二聖人僧。三慚愧僧。四無慚愧僧
12) 『5분율』권제24(大正藏 22, p.162 상) 有五種僧。四比丘僧。五比丘僧。十比丘僧。二十比丘僧。無量比丘僧。
13) 『근본살바다부율섭』권제9(大正藏 24, p.578 상-중) 有六種僧伽。一四人僧伽。二過此僧伽。三現前僧伽。四四方僧伽。五主僧伽。六客僧伽
14) 『근본살바다부율섭』권제4(大正藏 24, p.546 중) 言僧伽者。總有九種。謂無恥僧伽。有恥僧伽。恥無恥僧伽。順理僧伽。非理僧伽。理非理僧伽。未脫僧伽。已脫僧伽。脫未脫僧伽。

면 승보도 없다. 또한 4성제가 없기 때문에 역시 법보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법보와 승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불보가 존재하겠는가.[15]

위의 인용문에서 용수보살은 4성제를 배워 4향4과를 증득한 출가승을 승보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성제의 최종 목표는 아라한과를 증득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아라한과를 포함한 나머지 과위〔聖位〕에 대하여도 승보로 규정하고 있다. 본래 석존께서 녹야원에서 최초로 세상에 3보를 선포하면서 언급한 승보는 모두 출가한 비구로써 아라한과를 증득한 5명에 한정하고 있음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4향4과인 聖位의 4쌍8배는 見道인 예류향과 修道인 예류과에서 아라한향까지와 아라한과의 無學道를 말한다. 바로 이 4쌍8배가 성위인 승보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대승불교의 수행계위에 배대해 보면 初地인 見道 이상이 되어야 대승에서는 승보의 반열에 오른다고 하겠다. 대승불교에서 견도인 초지를 증득하기 이전인 십주, 십행, 십회향위은 소승불교의 수행계위인 3현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직은 예비적 단계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 『중론』의 정의대로 본다면, 소승불교에서 승보를 4향4과를 증득한 출가한 2부중이라고 한정한다면 이에 비추어 대승불교에서는 초지 이상의 보살을 승보라고 할 수 있다.

승보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은 『대승의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삼보를 別相三寶, 一體三寶, 住持三寶로 구분하고 있다.[16] 별상삼보란 階梯三寶라고도 하며 불보와 법보와 승보를 각각 다른 존재적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오온의 화합인 假人으로서 인도에 출현하신 석존과 그의 實德은 불보가 되며, 3乘 無漏의 공덕과 그들의 열반은 법보가 되며, 3승의 성중은 승보가 된다. 다음의 일체삼보는 동체삼보라고도 하는데 佛의 體上에 覺照의 의미가 있는 것이 불보가 되고, 佛德에 可軌의 의미가 있는 것이 법보가 되며, 違諍의 허물이 다한 것을 승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불보 안에 3보의 의미를 모두 포괄하고 있고, 법보와 승보 안에도 각각 3보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일체삼보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의 住持삼보는 석존의 팔상성도가 주지의 불보가 되고, 불타의 일체 言敎가 유포되어 세상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법보가 되며, 법의 교화에 의하여 이룬 3승의 衆僧을 주지의 승보라고 한다.

위의 『대승의장』에서 말하는 3종 삼보에 따른 개념에 의하면 승보에는 석존을 포함하여 시공을 초월해 3승의 성중이 모두 해당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존경할만한 스님이 없기 때문에 3보 가운데 승보에 귀의할 수 없다' 는 주장은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승가는 4인 이상의 출가한 비구, 비구니승의 2부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모든 승가가 곧 승보는 아니라는 것이다. 2부 승가 가운데 4향4과의 진실승, 화합승, 聖人僧을 승보라고 분명히 정의할 수 있다.

## 3. 승단과 교단의 관계

승단은 승가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즉 승단은 출가5부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먼저 형성된 것이 비구승가이다. 초기의 승단은 석존의 제자 1250인 비구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비구니승가의 성립은 석존의 양모 마하프라자파티의 출가로부터 시작되고 있다.[17]

한편 사미와 사미니, 식차마나에 대한 기록은 라후라가 최초의 사미가 된 경우[18]를 제외하고 상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승가의 구성원인 비구승가와 비구니승가의 2부중을

15) 『중론』권제4(大正藏 30, p.32 하) 四沙門果無故 則無四向四得者 若無此八賢聖。則無僧寶。又四聖諦無故。法寶亦無。若無法寶僧寶者。云何有佛

16) 『대승의장』권제10(大正藏 44, p.654 중) 一明別相。二明一體。三明住持。

17) 『사분율』(大正藏 22, pp.922 하~923 상), 『마하승기율』(大正藏 22, p.471 중~하), 『대애도비구니경』(大正藏 24, p.946 중~하) 등에 기술되어 있다.

18) 『사분율』(大正藏 22, p.809 하)

석존 당시부터 승단은 화합을 최고의 이상으로 하여 수행하는 가운데 승단 구성원은 布薩과 自恣라는 의식에 참여함으로서 승단을 유지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석존 열반 후 승단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은 승가회의나 장로회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정식의 승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는 정식의 승가 구성원이 되기 위한 예비적인 단계로 볼 수 있다. 사미는 비구승가의 지도 아래 그에 알맞는 교육과 수련을 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거나 20세 연령이 되면 구족계를 받아 비구승단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사미니와 식차마나는 비구니승가의 지도 아래에서 예비적인 수행을 하게 된다. 그러나 원래 승단 안에서는 비구니승도 비구승가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면 승단과 교단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승단과 교단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전제하에 이 둘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불교의 교단은 처음부터 4부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승가는 비구승가와 비구니승가의 출가2부중으로 구성되고 있고, 재가는 우바새와 우바이의 2부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초기에 재가교단은 승단처럼 일정한 조직의 형태를 유지한 집단이 아니라 재가2부중을 凡稱하여 불교교단 안에 攝入된 개념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출가와 재가의 이 둘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釋尊의 가르침을 찾아보기로 한다.

아난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만일〉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장례법은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은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비구들〕는 다만 묵연히 너희가 해야 할 것〔수행〕만을 생각하라. 여러 청신사들이 스스로 즐거이 그 일〔장례〕을 할 것이다." 이 때 아난은 다시 거듭거듭 사뢰었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장례법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장례법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전륜성왕의 〈장례법〉과 같으리라."[19]

이상 『장아함경』가운데 「유행경」에서 출가한 2부승가에서 해야 할 일과 재가교단에서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석존은 열반에 즈음하여 출가승에게는 출가인으로서의 본분인 수행과 부처님의 교법〔법신사리〕을 유촉하였고, 재가자에게는 석존의 장례, 즉 색신사리를 넘겨주었다. 인도불교사를 보더라도 석존의 멸도 후에 출가한 승단은 수행과 부처님의 교법을 연구하고 傳持하는 일을 가장 중요시 하였으며, 재가자들은 사리를 중심으로 한 불탑신앙이 주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석존 당시부터 승단은 화합을 최고의 이상으로 하여 수행하는 가운데 승단 구성원은 布薩과 自恣라는 의식에 참여함으로서 승단을 유지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석존 열반 후 승단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은 승가회의나 장로회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물론 역사상 인도에서는 아쇼카왕에 의해 "破僧을 꾀하는 비구, 비구니는 흰 옷을 입혀 환속시켜야 한다.[20]"고 석주법칙 등에 적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왕권에 의해

19) 『장아함경』권제3(大正藏 1, p.20 상) 阿難卽從座起。前白佛言。佛滅度後。葬法云何。佛告阿難。汝且默然。思汝所業。諸淸信士自樂爲之。時。阿難復重三啓。佛滅度後。葬法云何。佛言。欲知葬法者。當如轉輪聖王

20) 平川彰저/이호근역, 『인도불교의 역사』상, 민족사, p.126

승가 고유의 문제들이 침탈된 이러한 사례들이 무수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법난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본래 승가 자체 내의 일은 승단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불변의 원칙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승가2부중처럼 일정한 계율에 따라 그것을 어길 경우 律法的 구속력을 갖는 집단의 특징과는 달리, 재가2부중은 신행을 위한 자발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승단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율장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하겠다. 또한 재가자의 모임은 의무적이며 가시적인 권한을 가진 단체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승가와 재가의 단체가 지향하는 방식과 목표가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승가와 재가는 상하로 예속되는 관계가 아니라 각각 수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불교교단 안에서 재가자가 해야 할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앞의 『유행경』에서 석존이 유촉하신 바에 따르면 재가자들은 색신사리를 담당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재가자들은 출가승가에 수행 공간인 승원과 음식, 의복, 의약품〔의식주〕 등을 보시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소임이었다. 그리고 또한 재가2부중은 사리탑의 유지, 보수 등 불교교단 안에서 물질적인 차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한편 출가승단은 수행과 법에 대한 연구와 포교를 하는 것이 석존의 본래 의도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불교교단 안에서 승단이 불교교단의 물질적인 책임과 정신적인 책임을 모두 권한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조선 시대 억불정책으로 불교가 산중으로 들어가면서 역사적 굴곡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잘못된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승단과 재가자들의 고유한 역할 분담은 불교 본래의 정신에 맞게 하루빨리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승가와 재가는 불교교단 안에서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상보적인 관계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할 때 서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게 된다. 두 주체는 긍정적인 관계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 것이다. 출가승단은 재가에게 부처님의 교법을 전해주며, 재가자는 출가자에게 그들이 필요한 공양물을 보시함으로서 서로 없어서는 안 된다. 출가자가 타락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財色에 빠지는 것이다. 이는 불교가 생긴 이래 많은 조사들이 가장 경계한 대목이다.

그리고 재가자들은 그들의 의무인 출가승단에 지혜로운 보시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출가자들이 본분인 본래의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재가자들이 승단의 일에 간여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도 아니고 있어서도 안 된다. 다만 재가자들은 승단의 일에 간여하는 것이 아닌 불교교단 안에서 재가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출가승단은 사찰 경제의 재정적인 부분을 하루 빨리 재가교단에 넘겨주고 출가인의 본래 임무인 수행과 교학의 연구에 매

현재 한국의 불교교단 안에서 승단이 불교교단의 물질적인 책임과 정신적인 책임을 모두 권한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조선 시대 억불정책으로 불교가 산중으로 들어가면서 역사적 굴곡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잘못된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승단과 재가자들의 고유한 역할 분담은 불교 본래의 정신에 맞게 하루빨리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불교교단 안에서 승단이 불교교단의 물질적인 책임과 정신적인 책임을 모두 권한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조선 시대 억불정책으로 불교가 산중으로 들어가면서 역사적 굴곡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잘못된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승단과 재가자들의 고유한 역할 분담은 불교 본래의 정신에 맞게 하루빨리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진해야 할 것이다.

## 4. 결론

승보와 승가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 즉 승가가 곧 승보인 경우가 있지만 승가가 바로 승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승가라는 수식어에 반드시 들어가는 말은 청정과 화합이다. 승가의 생명은 바로 청정과 화합에 있는 것이다.

승가는 청정과 화합을 통해 결국은 수행의 완성인 깨달음을 지향하게 된다. 초기교단에서의 4향4과와 대승불교에서의 초지 이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승가가 곧 승보가 된다. 결국 승가는 수행의 과정적 개념이라면 승보는 수행의 결과적 측면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승가가 곧 승보가 아닌 것은 깨달음의 유무에 있는 것이다.

다만 승가의 본래 의미에 맞게 청정과 화합을 지향하면서 포살과 자자를 성실히 행하고 있지만 아직 과위를 얻지 못한 청정승, 화합승을 승보라고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율장 정신 안에서 더 연구해할 것이다.

교단과 승단의 문제는 구성원의 범위를 분명히 한다면 쉽게 정리될 문제이다. 교단은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다. 불교교단은 출가와 재가로 구성되어 있다. 불교교단 안에서 출가와 재가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상보적인 관계이다. 어느 한 쪽이 없어도 교단은 존립할 수 없다. 교단 안에서 두 주체는 각각 고유한 역할이 있다. 석존의 유훈이 잘 담겨진 『유행경』에 의해 드러났듯이 출가는 석존의 법신사리를, 재가는 석존의 색신사리를 잘 유지하고 받들며 후대에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한국의 불교교단은 역사 속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는 한국불교 1600여 년의 불교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과연 현재 우리들이 불교 본래의 정신을 꽃피우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의 불교교단이 과거의 찬란했던 정신문화를 자랑스럽게 들추며 현재의 문제점들을 고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일이다. 定慧社


**참고자료**

1. 『長阿含經』(大正藏 1)
2. 『中阿含經』(大正藏 1)
3. 『雜阿含經』(大正藏 2)
4. 『因果經』(大正藏 3)
5. 『四分律』(大正藏 22)
6. 『5分律』(大正藏)
7. 『摩訶僧祇律』(大正藏 22)
8. 『十誦律』(大正藏 23)
9. 『根本薩婆多部律攝』(大正藏 24)
10. 『毘尼母經』(大正藏 24)
11. 『中論』(大正藏 30)
12. 唐 普光述,『俱舍論記』(大正藏 41)
13. 隋 慧遠撰,『大乘義章』(大正藏 44)
14. 平川彰 著/이호근 譯, 『印度佛敎의 歷史』상, 민족사.

# 대웅보전大雄寶殿의 벽화(2)

송광사 대웅전으로 들어가 수미단을 옆으로 끼고 뒤쪽으로 돌다 보면 수미단 뒤편으로 걸려있는 커다란 크기의 벽화 세 점을 볼 수 있다. 왼쪽으로부터 부처님의 포살, 열반, 설법장면을 그린 것인데, 이 벽화는 비교적 최근인 지난 1988년 대웅전을 중수重修하며 무형문화재 14호인 조정우거사가 그린 것이다. 각각 불법승 삼보를 의미하는데 먼저 가운데의 열반도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의 장면으로 수미단 아래의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부도탑의 위에 위치함으로 불보를 의미한다. 오른쪽에 있는 설법도는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부터 시작된 전법의 장면을 나타내 법보를 의미하며 열반도의 왼쪽에 있는 포살도는 대중스님들의 포살장면인데 '이계위사以戒爲師'의 깊은 뜻을 나타내며 승보를 의미한다. 〈편집자 주〉

## 1. 열반도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에서 열반하실 때의 장면을 그린 상상도로서 하늘에서는 아나율 존자가 마야부인일행을 데리고 내려오는 모습이 묘사되어있고 부처님께서 누워계신 단 주위로 사천왕과 십대제자부터 용왕 그리고 코끼리나 호랑이 같은 축생, 뱀, 나비에 이르기까지 육도의 중생들이 슬퍼하며 우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열반이라는 말은 본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번뇌가 모두 없어진 경지를 말한다. 곧 열반은 번뇌가 다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열반의 경지를 멸滅, 또는 적멸寂滅, 원적圓寂, 무위無爲, 무작無作, 무생無生, 멸도滅度 등으로 풀이한다. 이 말들은 모두 번뇌가 없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고 즐거움만 나타나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또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방해하는 번뇌장과 지혜의 활용을 장애하고 무지無知하게 살도록 유도하는 소지장의 번뇌를 모두 정화하고 단멸한 경지를 의미한다.

대승과 소승에서의 열반에 대한 견지가 상이하다. 대승불교에서는 유심주의적唯心主義的인 경향으로 번뇌가 완전히 정화되면 곧 열반이 실현된다는 것이지만 소승불교에서는 마음이 정화되어 번뇌가 없어졌다고 해도 육체가 생존해 있으면 유여열반裕餘涅槃이라 칭하였다. 곧, 번뇌도 정화되고 육체도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경우라야 완전한 열반으로 간주하여 무여열반無餘涅槃이라 하였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부처님이 12월 8일 보리수 아래에서 모든 번뇌를 끊고 성불한 것을 열반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승불교적인 열반관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45년간 중생교화를 마치고 2월 15일에 사라수나무 사이에서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뜬 것 또한 열반이라 하는데 이는 소승불교적인 열반관에 의한 시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월 15일을 열반재일로 삼아 법회를 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소승불교관점에서의 열반의 개념이 일반화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불교관은 대승불교이다. 이에 우리는 열반에 대한 대승불교에서의 관점을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 『선문염송』의 일부분을 보아 불타의 열반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세존께서는 중인도의 쿠시나가라 성 밖에 있는 발제하跋提河라는 언덕에서 쉬고 계셨다. 그 언덕에는 사라(sala)라는 나무가 네 쌍이 있었는데 세존께서는 그 나무 복판에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누우셔서 열반하셨다. 이 때 세존의 수제자인 가섭존자는 여러 제자들과 함께 기사굴산에서 선정禪定을 닦고 있었는데 선정 중에 보니 천지가 어둡고 해와 달이 광채를 잃고 새와 짐승들이 슬피 울었다. 분명 세존께서 입적入寂하셨음을 알았으나 부처님을 공경하는 까닭에 감히 날아서 가지 못하고 길을 따라 빨리 가서 7일 만에 구시나성에 이르니, 세존께서 입적하신지 이미 7일이 지난 뒤였다. 가섭이 게송을 읊으며 슬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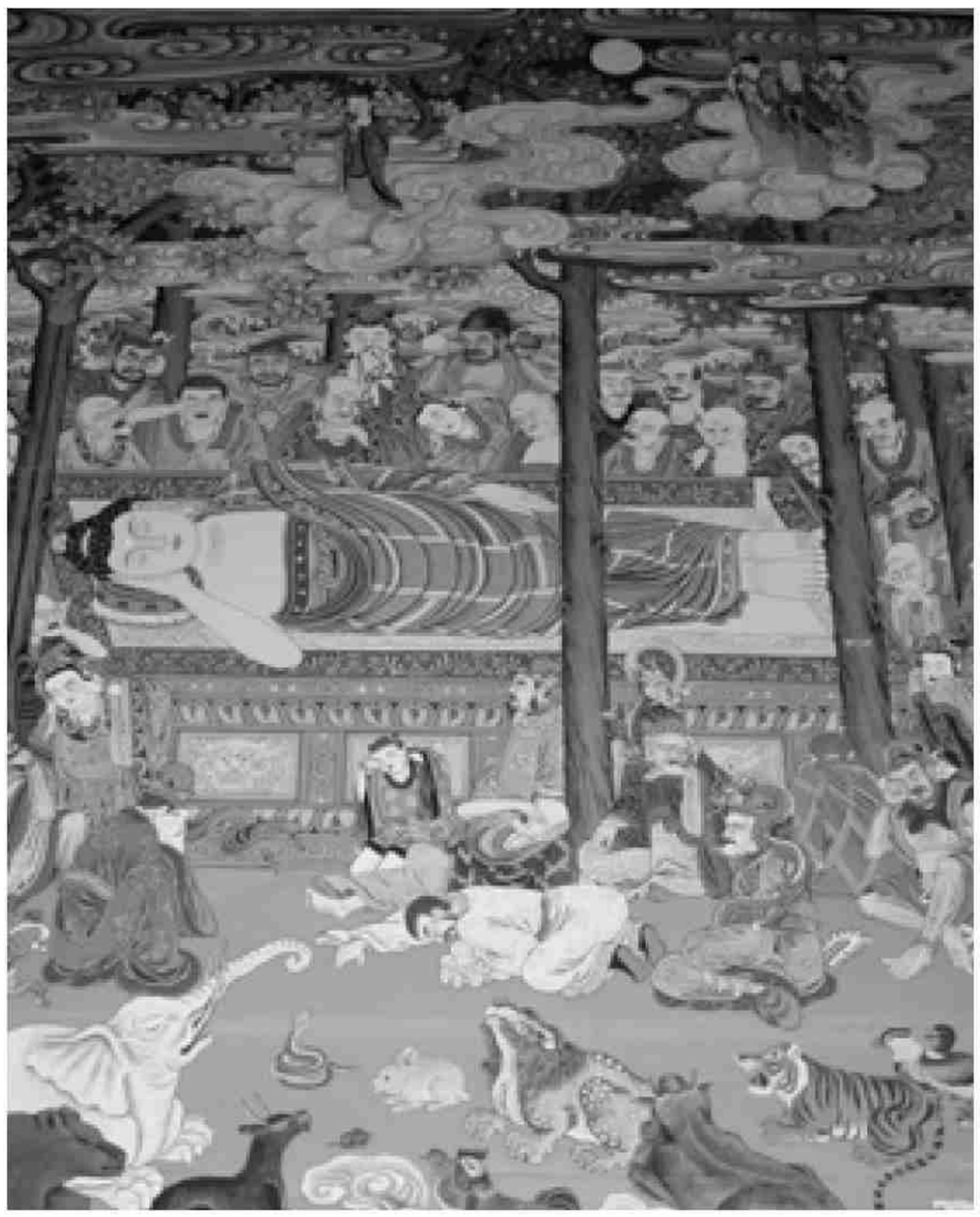
'세존의 열반이 어찌 그리 빠르신고. 대비하시니 나를

기다리지 못 할리 없으실 터 / 내 이제 여래의 정수리에 정례하고 / 다시 여래의 가슴에 정례하고 / 다시 대성의 손에 정례합니다. / 다시 여래의 가슴에 정례하고 / 다시 여래의 허리에 정례하고 / 다시 여래의 배꼽에 정례하고 / 다시 정성으로 여래의 발에 정례하오니 / 무엇 때문에 부처님의 열반을 보지 못하옵니까 / 바라건대 저에게 경례할 곳을 보여주소서.'

그 때 세존께서 관으로부터 두 발꿈치를 보이시고, 천폭의 바퀴 모습으로부터 광명을 놓고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시고는 다시 관으로 들어가 전과 같이 닫히고 봉해졌다. 이러한 불가사의한 경지를 열반이라 칭하고 이에 대하여 선문염송에서 다음과 같이 찬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영혼의 근원은 본래 담적湛寂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가 없고 현재도 없다. 마음의 묘체妙諦는 신령스럽고 밝은 것인데 어찌 생과 사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까닭에 이 발제하의 언덕에서 부처님이 널 밖으로 두 발을 보이실 수 있었느니라.'

선문염송에서의 이와 같은 열반에 대한 찬탄은 마음의 근원은 생사를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세존의 열반은 단순한 소승적 견지의 의미가 아닌 영생불멸의 존재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결국 이러한 관점이 참다운 대승의 견지에서 가지는 열반의 의미라고 확인할 수 있다.



열반도

## 2. 포살도

포살도는 부처님께서 대덕들과 함께 계본을 낭송하며 포살의식을 하는 장면을 묘사한 상상도이다. 가운데는 대덕들이 멍석을 깔고 앉아 계본을 설하고 있고 주위로 많은 대중스님들이 다 모여 포살의식을 행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불교 교단의 구성원들이 원만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청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일정한 규범이 필요한데, 이것을 계율이라 한다. 따라서 계율은 개인수행의 기본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불교 교단을 유지해 나가는 기반이 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구성원 스스로가 생활을 바르게 행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포살이란 이렇게 교단 구성원의 생활이 실제로 계율에 입각하여 바르게 행해져서 청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되는데 사원의 모든 승려들이 모여서 바라제목차의 조문을 일일이 암송하며 서로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는 의식이다. 재가자들도 포살을 하는 날에는 자기 지역의 사원을 방문하여 예불 행사에 참여하고 승려로부터 설법을 듣기도 한다.

포살은 진리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나'를 강화하는데 큰 바탕이 된다. 뉘우치고 반성하며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과의 불화를 녹여주며 좁은 마음을 넓혀주고, 상相에 가려진 딱딱한 마음을 무상無常의 원만한 성품으로써 내려놓게도 해준다. 그리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포살에 임하는 수행자는 포살의식 때 자신의 모든 허물을 드러내 깨끗한 자신의 마음을 비출 수 있다.

이러한 포살은 동남아시아의 상좌부 전통에서 초기의 형태가 가장 잘 지켜지고 있는데, 그 유래가 고대인도 의례에까지 소급될 수 있어 보다 정확하게 경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 부처님께서 아직 여러 비구들에게 포살을 청허하지 않으셨고, 포살갈마도 청허하지 않으셨으며, 바라제목차의 강설도 청허하지 않으셨고, 그 회자(법회)도 청허하지 않으셨다. 이 때 이교도(바라문교도)인 범지가 여러 비구에게 물었다. "그대들도 포살갈마와 바라제목차의 강설과 회자(법회)를 작지하는가" 여러 비구가 "작지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자, 이교도 범지가 비난하여 말했다. "외도의 사문이나 바라문도 포

포살도

살, 포살갈마, 바라제목차의 강설과 회자를 작지하는데, 그대들 사문적자(부처님의 제자들)는 선량하여 덕망이 있다고 자처하면서도, 포살, 포살갈마, 바라제목차의 강설과 회좌도 작지하지 않는가." 그 구하는 바 없이 자족하여 능히 두타를 행하는 여러 비구가 이러한 일을 전해 듣고 그 마음이 부끄러워서 모두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연으로 대중스님들을 불러 대중스님들이 모이자,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포살, 포살갈마, 바라제목차의 강설과 회자의 작지를 청허한다. 내가 계율로 제정한 바에 따라서 반드시 바라제목차를 강설하여라."

-『십송률 제22권4. 사송』

이와 같이 포살의 유래는 바라문교도들의 행사였는데 그 유익함을 생각해 받아들인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총림에서는 포살·법문이 안거기간에만 정기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게다가 빠른 법회 진행을 위하여 형식에 많이 치우쳐진 경향이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수행자로서의 청청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포살의식이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포살에 임하는 우리 또한 진지한 자세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잘못을 뉘우치며 계본을 낭송한다면 이러한 포살의식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3. 설법도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1200대중을 향하여 설법하시는 장면을 그린 상상도이다.

그림의 위쪽에는 천상에서 법문을 듣기 위해 내려오는 천인들과 나무아래 저쪽으로는 녹야원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슴의 무리들, 그리고 나무아래 앉아 많은 대중들을 향하여 설법하시는 부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대중스님들의 피부색과 가사가 여러 종류라는 점인데 이는 전 세계 각국의 스님들과 모든 부파들이 결국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법은 부처님의 도를 사람들에게 설하여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설교說教, 설경說經, 연설演說, 법시法施, 법독法讀이라고도 한다. 부처님은 때나 상대의 능력·근기에 응해서 각기에 알맞은 교법을 써서 교화의 효과가 극대화 되게끔 설법하셨는데 한가지의 말로 설법하여도 듣는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이해의 깊이가 달랐다.

설법이라는 것은 법을 설하는 사람이 있고, 법을 청하는 사람이 있으며, 설하여 지는 법이 있다. 각각 이들의 올바른 자세와 내용을 경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법을 설하는 자는 "법을 설하는 사람은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설하여야 한다. 하지만 함부로 설하면 안 된다. 또 경전을 덮어놓고 설해서도 안 된다. 또 법을 듣는 사람은 설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그 설교의 내용이 부처님의 거룩하신 정신에 맞는 것이면 이를 경건한 마음으로 듣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법화경』에서 말한다.

그리고 법을 청하는 자의 자세는 설법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키는 것과 상관이 있다. 즉 청법자의 수용적 자세가 설법의 효과성 여부는 물론이고, 설법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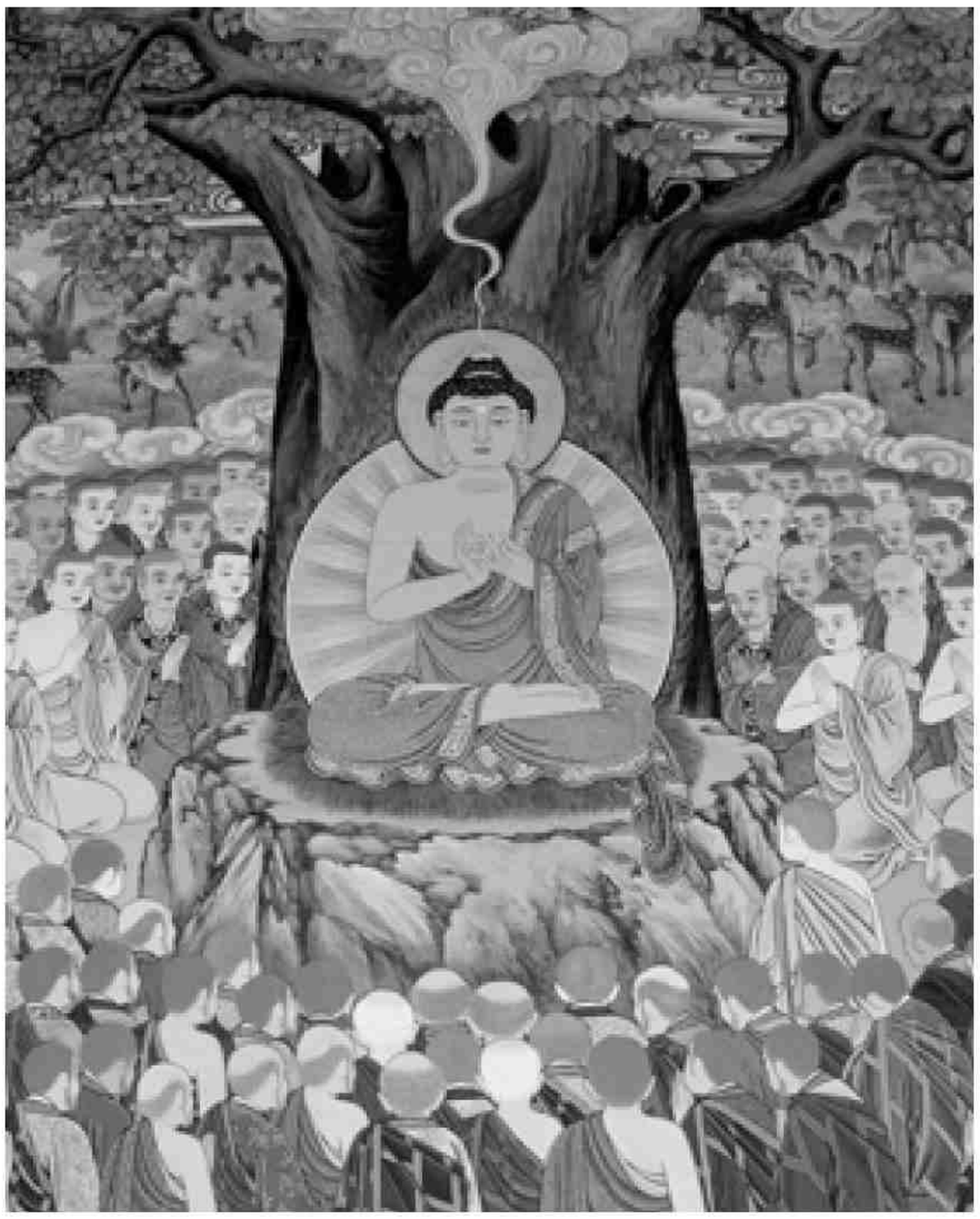
"세존이시여, 우리들의 법은 세존을 뿌리로 하고 세존을 의지처로 합니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하신 뜻을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수행승들은 세존의 말씀을 듣고 받아 지니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쌍윳다 니까야』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전을 통한 청법자들의 수용자세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부처님을 자신들이 받아들이는 법의 뿌리이며 의지처로 정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확신한다. 둘째는 제기된 문제의 답을 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려 한다. 셋째, 가르침을 들은 뒤에 버리지 않고 항상 받아 지니겠다는 약속을 부처님과 자신에게 다짐한다. 이와 같은 자세가 법을 듣는데 있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하여지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설법을 허락하였을 때의 말씀을 경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 때 부처님은 이런 발기發起에 따라 비구승들을 모으고 이르셨다.

"모든 비구들이여, 나는 이제 5일마다 너희들이 대회를 열고 남을 위해 설법하고 법의 뜻을 연설할 것을 허락하노라" 모든 비구들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법을 설하고 어떤 법을 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비구들의 이런 말을 들으시고 부처님은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비구들이여, 내 이제 이미 5일에 집회할 것을 허락하였으니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법의 공덕을 찬탄하고 승의 공덕을 찬탄하고 믿음의 공덕을 찬탄하라. 내지 간략히 말하면 계행과 많이 듣는 공덕을 찬탄하고 보시 행할 것을 찬탄하고 지혜를 행할 것을 찬탄하고 지족을 행함을 찬탄하고 욕심이 적음을 찬탄하고 두타의 행을 찬탄하고 멀리 마을과 성읍을 떠나 항상 한가한 데 있음을 찬탄하고 묘행을 행할 것을 찬탄하고 이익을 찬탄하고 정진을 행할 것을 찬탄하고 부모와 존장과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공양함을 찬탄하고 모든 선지식을 공양함을 찬탄하고 착한 말을 찬탄하고 모든 근문根門을 조복함을 찬탄하고 모든 음식의 분량을 절약함을 찬탄하고 초야初夜와 후야後夜에 잠자지 않음을 찬탄하고 바른 생각을 냄을 찬탄하고 서로 받들어 섬김을 찬탄하고 서로 의논해 물음을 찬탄하고 듣고 깨달음을 찬탄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면 등지지 않고 받들어 행함을 찬탄하고 법을 들으면 바로 아는 것을 찬탄하고 바른 법을 듣고 법에 따라 행함을 찬탄하고 부처님 생각함을 찬탄하고 하늘을 생각함을 찬탄하고 보시를 생각함을 찬탄하고 적멸을 생각함을 찬탄하고 아나바나를 생각함을 찬탄하고 몸을 생각함을 찬탄하고 항상 부정관을 생각함을 찬탄하고 죽는 생각 냄을 찬탄하고 음식에 부정한 생각을 냄을 찬탄하고 세간을 가히 즐겨할 것이 없음을 찬탄하고 무상한 생각을 찬탄하고 괴롭고 공한 생각을 찬탄하고 내가 없는 생각을 찬탄하고 끊는



설법도

생각을 찬탄하고 욕심을 버리는 생각을 찬탄하고 멸하는 생각을 찬탄하고 또 백골을 관하는 생각을 찬탄하고 뼈가 흩어지는 생각을 찬탄하고 퉁퉁 붓는 생각을 찬탄하고 무너지는 생각을 찬탄하고 반쯤 씹어 먹는 생각을 찬탄하고 흩어지는 생각을 찬탄하고 반쯤 태우는 생각을 찬탄하고 붉게 타는 생각을 찬탄하고 가히 미운 생각을 찬탄하고 모든 공덕을 생각함을 찬탄하며 또 응당 4정근·4여의족·5근·5력·7각도분을 찬탄하고 해탈문의 해탈을 찬탄하고 8승처를 찬탄하고 3명을 찬탄하고 또 6신통의 공덕을 찬탄하여라"

-『불본행집경』제49권 〈설법의식품〉

설법을 하는 데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비심이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자기도 물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 같이 또 자애로운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기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법을 설해야 하는 것이다.

덮어놓고 "너는 미혹에 빠져있다"하고 내리눌러 꾸짖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자기의 몸을 낮추어 세상 사람과 한데 어우러져 함께 괴로움을 맛보면서 인도해야만 이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널리 펴질 것이다. 定慧社

# 지난 행자 시절

향성香聖 | 사미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시작한 송광사 강원 큰방 생활이 이십 여일을 지나고 있다. 아직도 누가 누군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눈을 크게 뜨지도 못하고 윗반 스님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고, 숨도 크게 쉬지 못하겠다. 하지만 그래도 좋다. 너무 좋고 행복하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 말을 오늘도 수없이 되뇌어 본다. 그리고 조금은 특별한 나의 지난 행자 시절 생활을 뒤돌아본다.

흔히 절집에서 이야기하는 늦깎이 출가. 마흔을 넘긴 불혹의 나이에 출가하여 삭발하고 밤색 행자복을 입고 오로지 승복 한 번 입어보고 행자님이 아닌 스님 소리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나의 상상이자 꿈이었다. 강원도 설악산 내 백담사의 그 추운 겨울을 손발이 다 얼어 터지면서도 오로지 정식으로 수계하여 스님이 된다는 일념으로 견디어냈다. 드디어 그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른 봄이 찾아왔다. 나에게도 어느새 행자교육원에 입교할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그해 봄 행자 교육원 입교자에 한하여 출가자의 연령제한을 만 40세로 하는 법령이 발효되었다. 그때 나의 속가 나이가 만 40세 생일을 넘긴 뒤였다. 나에게는 청천벽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었다.

백담사 주지스님 이하 백담사 무문관 선원인 무금선원 선원장스님 또한 은사스님에게 어떠한 방법을 찾아달라고 사정하고 애원해 보았다. 그러나 되돌아오는 대답은 종헌법이 몇 년 안에 개정될 것이니 참고 견디면서 더욱 열심히 생활하며 기다리란 것이었다. 그날 이후 나의 행자생활은 절망 그 자체였다. 밥맛도 잊어버리고 잠도 오지 않았다. 어떻게 일어나 새벽예불을 준비하고 예불을 했는지 또한 절의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내 자신도 잘 모를 지경이었다. 그러기를 약 한달 가량 지내면서 차차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이 모든 일 나에게 생기는 주변의 모든 일은 부처님의 말씀처럼 나의 전생 업장이 두터워 생기는 일인 것으로 굳게 믿고 설령 스님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전생의 나의 업, 속가에서의 알게 모르게 수많은 세월동안 지은 나의 업장을 조금이라도 참회 하자는 심정으로 더욱 하심하며 절 생활에 매진하였다. 한편으로 틈나는 대로 부처님 전에 열심히 절을 하면서 간절히 빌었다. 훌륭한 부처님 제자 훌륭한 스님. 부처님의 혜명을 잇기 위해 정말로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수행자가 되게 해 달라고 눈물로 빌고 또 빌었다. 그러기를 2년 하고도 6개월이 지난 2006년 초여름이었다.

그해 가을 행자교육원에 입교할 수 있도록 종헌법이 개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다. 로또 복권에 당첨된 적은 없지만 그때의 기분을 로또 1등에 당첨된 것으로 표현해야 맞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그때의 그 심정 그 마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리하여 유난히도 더웠던 그해 8월 여름 행자교육원에 입교하여 21일간의 교육을 신심 하나로 잘 마치고 정말로 꿈에 그리던 그런 모습으로 김천 직지사 일주문을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지난날의 나의 행자시절이 있었기에 지금 나의 이 송광사 강원 사미반 생활은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며 감회가 남달리 새롭기만 하다.

이른 새벽 예불할 때 환희심과 신심이 절로 일어나 눈물이 나기도 한다. 정말 열심히 배우고 익히며 생활할 것을 다짐하며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에 감사드린다. 오늘도 부처님 전에 일심으로 삼가 발원하여 본다. 저의 신심이 나날이 증장되어 불퇴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남은 인생 부처님의 계율을 청정히 지키며 정말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그런 스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세생생 부처님제자, 세세생생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가기 위해 수행 정진하는 그런 수행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사 밥맛은 너무 좋다. 정말 좋다. 부처님 밥이라 그런가 보다. 발우공양이라 많이 먹을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밥맛이 좋은 것을 보니 이곳에 오래 있을 것 같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定慧社

# 송편 울력

석원碩圓 | 치문

오늘은 음력 8월 14일, 추석 바로 전날로써 송광사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과 직원들이 정혜사에 모여 송편 빚기 울력을 하는 날이다. 저녁예불을 천수경과 좌선을 생략하고 반야심경까지만 한 뒤 정혜사 큰방에 모두 모여 송편 만들기 울력을 시작했다. 큰방에 송편을 빚을 재료들은 이미 큰방 소임 스님들이 준비해두어 간편하게 만들기만 하면 되었다. 여기저기서 사중스님들과 재가 불자님들까지 도란도란 모여 앉아서 간단한 담소와 함께 울력을 시작하였다. 처음 송편을 빚기 시작할 때는 주위 몇몇 분들의 송편만이 예쁜 모양으로 나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능숙한 솜씨로 송편을 빚기 시작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반죽을 조금 떼서 동그랗게 펴고 거기에 속을 넣고 반죽을 덮어서 눌렀는데 뭔가 잘못되었는지 반죽이 서로 붙지를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꾹 누르면 반죽끼리 찰싹 달라붙는데 내가 누르면 반죽끼리는 붙지를 않고 손에 달라붙어 반죽이 찢어지는 것이다. 내 손이 반죽도 아닌데 말이다. 할 수 없이 구멍 난 곳을 반죽덩어리에서 약간 떼어서 막은 후 이번에는 손에 힘을 덜 주어서 눌러보았다. 이번 송편은 반죽끼리 잘 달라붙긴 했지만 다른

문제가 생겼다. 바로 모양이다. 다른 사람들은 반달 혹은 동글동글하고 예쁜 모양으로 잘 나오는데 나는 이상하게도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이 생긴 것들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복구해 볼 생각으로 반죽을 약간 더 붙여서 동글동글한 모양 만들기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결과는 처음과 다를 바가 없었다. 부피만 잔뜩 늘어나서 송편모양이 볼품없었다. 내가 만든 송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던데… 괜찮아 일단 질보단 양이 많으면 배도 부르고 좋으니깐' 하지만 이것은 나만의 생각일 뿐 주위 도반스님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송편 2~3개를 만들 만한 반죽으로 송편 하나를 만들었으니 주위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은 당연했다. 송편 만드는 것을 다른 도반스님들에게 미루고 조용히 빠져나와 송편 나르는 팀에 합세했다. 그리고 송편을 만드는 재료와 완성된 송편을 나르면서 다짐했다. 다음 송편 울력 때에는 돌 모양이 아닌 나만의 독특한 반달 모양이나 별 모양 송편을 만들어서 도반스님의 따가운 시선을 다시는 받지 않겠다고. 定慧社

# 도성당 비누

도휴道休 | 치문

무더운 여름 나는 도성당 시자 소임을 보고 있었다.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 도성당 방안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장작으로 불을 때고, 걸레로 방을 닦고, 세면장을 청소하며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열심히 시자 소임을 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면대 옆을 지나다가 비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비누에 선명하게 그어진 쥐 이빨자국… 난 쥐가 갉아 먹었다는 이유 하나로 아무 생각 없이 비누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다음날 닥쳐올 엄청난 일은 알지 못한 채 말이다. 다음날 열심히 도성당 시자 소임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내가 어제 쓰레기통에 버린 것과 똑같이 생긴 비누 하나가 세수 대야에 있지 않은가. 잠시 동안 그것을 보며 생각하는 사이 마침 그 앞을 지나가시던 은사스님께서 나를 보고는 갑자기 소리치셨다. "네가 비누 버렸냐" 헉! 속으로 뜨끔 하는 틈에 은사스님은 이미 눈치 채셨는지 불호령을 내렸다. "너는 이 멀쩡한 비누를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냐. 시주물 소중한 줄도 모르고 쯧쯧. 내가 딱 보니까 넌 양말에 구멍 나도 꿰매어 신지 않고 쓰레기통에다 그냥 버릴 것 같다" 그 말을 듣고 속이 굉장히 뜨끔했다. 실제로 강원에 들어와서 생활용품이 좀 넉넉하게 있다고 해서 양말에 구멍이 나면 빨래하고 난 뒤 관물함 한 구석에 두거나 그냥 버린 적이 있었기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은사스님의 한바탕 불호령에 기가 팍 죽은 나는 대충 소임을 마치고 도망치듯 도성당을 빠져 나왔다. "도휴가 쓰레기통에 비누 버렸냐" 마침 도성당으로 오시던 유나스님과 마주친 것이다. 합장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유나스님의 굵은 목소리가 내 발을 붙잡았다. 그리고 말없이 합장한 나에게 유나스님의 훈계가 이어졌다. "도휴야, 옛날 스님들은 말이야 냇가에서 배추 씻다가 배추 한 잎만 흘러가도 뛰어가서 주워오셨고, 너희 노스님은 양말에 구멍이 나면 꿰매어 신는 등 몸소 검소함을 실천하셔서 다들 존경했는데 도휴 네가 그러면 쓰겠어. 시주물 아끼고 소중히 쓸 줄 알아야 한다. 알겠지." 말씀이 끝나자마자 정신없이 도성당을 나와 지대방으로 향하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얼마나 무감각하게 살았는지… 내 손으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내 물건 인양 함부로 쓰고 버리고… 차마 부끄러워 말을 할 수가 없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양말에 난 구멍을 꿰매면서 도성당에서 있었던 비누 생각을 했다. 가끔씩 우리 반 스님들이 지대방에서 양말을 꿰매어 신는 모습을 보면 같은 도반이지만 머리가 절로 숙여진다. 비누 하나가 정말로 많은 공부를 시켜준 셈이다. 定慧社

# 그 때를 아시겠죠

두윤頭胤 | 사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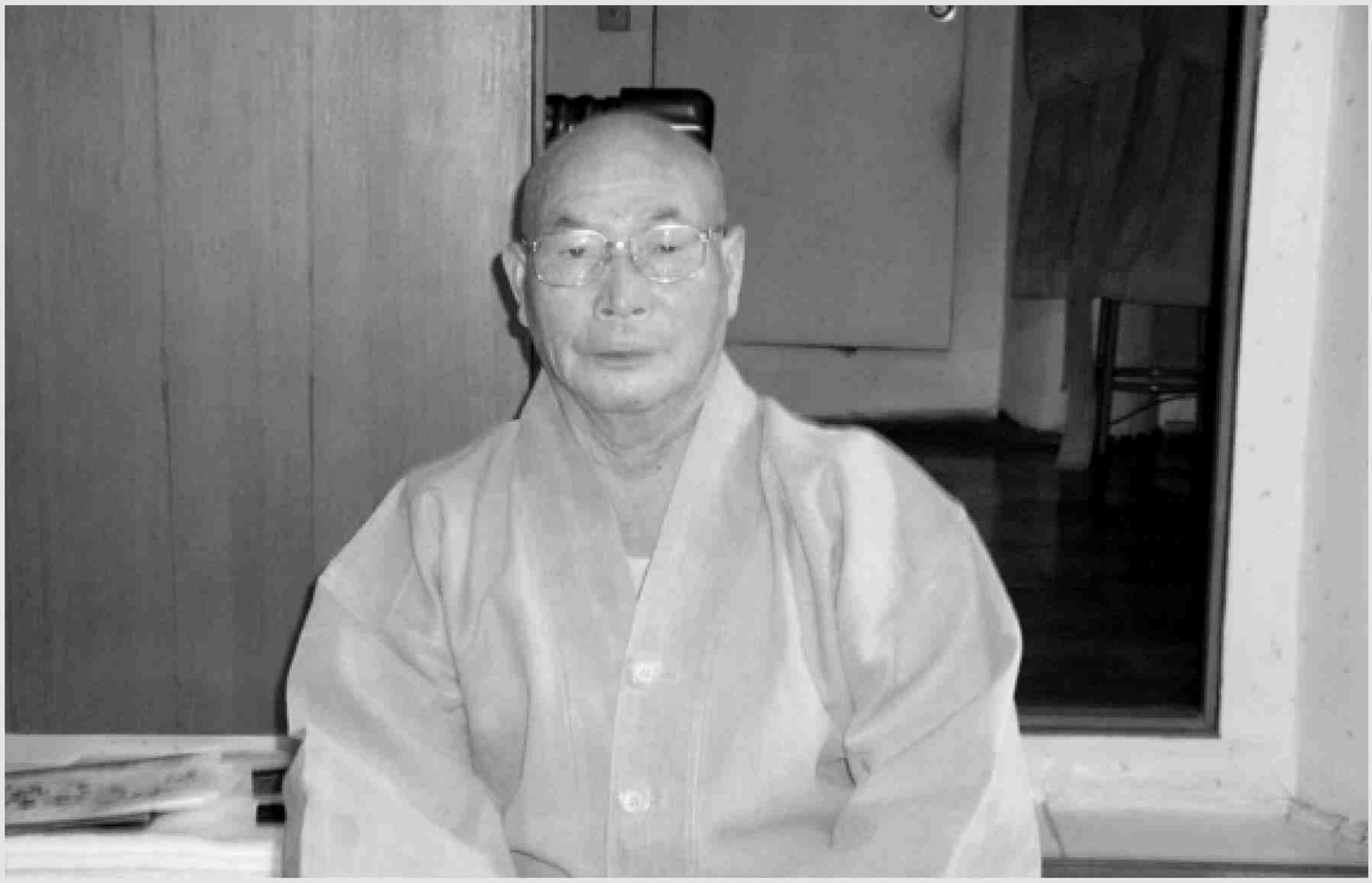
'탁 탁 탁' 정혜사 큰방 사시공양을 마치는 우렁찬 죽비소리와 함께 잠시 후 찰중스님께서 한 말씀 합니다. 12시 10분까지 ○○울력○○에서 집합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울력 시작을 알리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이랍니다.

울력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스님들이 울력 중에 성불합시다! 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울력에 깊고 미묘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광사는 계절별로 대중울력이 많습니다. 봄이면 찻잎을 따서 차를 만들고, 여름이면 발 작업해서 하안거를 준비하고, 가을이면 거두는 계절답게 농산물을 거두어들이고, 낙엽을 거두어 거름으로 만들고, 김장을 절이고 장작 울력으로 겨울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의 마음까지 분주하게 만들어 주는 각종 울력들이 때에 맞추어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번 병술년 동안거 때는 윤달로 인해 김장 울력을 하지 못해서 사중과 후원에서 많은 고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유년, 병술년에 있었던 김장 울력을 회상하며 그 피곤함을 풀어주고 아쉬움을 대리만족하려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을유년 동안거. 당시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김장을 연기 시켜야 하는가, 강행을 해야 하는가 갈등하던 찰나에 방장스님의 한마디에 전 사중 스님들은 면장갑 위에 비닐장갑, 비닐장갑 위에 고무장갑, 장화, 앞치마를 두르고 김장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문반이었던 저는 솔직히 처음 겪는 대중 울력이라 긴장 반 설렘 반으로 얼굴은 약간 홍조를 띄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밭에서 배추가 운반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달 달 달' 잠시 후 삽시간에 후원 뒤의 울력장은 스님들과 재가 보살님들 봉사자들의 눈부신 땀방울이 함께 했습니다. 윗반스님들의 배추를 다듬는 현란한 칼 솜씨와 민첩한 움직임 속에 정신없이 짠물을 먹고 쉬는 배추는 늘어만 가고 산더미 같이 쌓였던 소금은 금세 물 만나 녹아 형태가 없어지며 어부차림의 스님들이 물통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은 힘들다는 생각에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후원에서 새참으로 라면을 준비하였습니다. 약간 쉬는 시간을 통해 서로 교대해 가면서 라면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 때의 라면 맛은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과 함께 시장기는 어느덧 사라지고 얼었던 몸은 사르르 녹는 포만감… 꿈같은 쉬는 시간도 잠깐, 이제 몸이 식어버릴까 다시 뛰어다니며 배추 절이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둘째날, 오늘은 절여놓은 배추를 씻어내야 했습니다. 후원에서 화엄전으로 건너가는 냇물을 막아 어장처럼 발판을 만들고 배추를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선방스님들이 두 손 걷어붙이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힘이 절로 나곤 했습니다. 다들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도와서 배추 씻기를 마무리 하고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무렵 사집반장 스님의 일갈, "치문반 스님들 여기 물에 있는 배추 찌꺼기 다 건져내야 하니께네, 자! 알아서 하이소."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시는 스님의 뒷모습이 참 커보였습니다.

막막함도 잠깐, 빨리 마무리 해볼 거라고 서로들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냇가의 폭은 약 8m 정도 이고 깊이는 정강이만큼 이였죠. 몇몇이 해보지만 이정도의 물은 밑으로 내린다고 내리지만 그 물이 다시 역류하게 되어 그 자리를 맴돌게 되더라구요. 처음에는 각자 빗자루와 갈퀴를 들고 서로의 생각을 내세우던 스님들이 의견을 모으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빗자루로 통일하고 일렬로 서서 숫자를 세어가며 하나, 둘, 셋 물살은 밀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산란했던 분위기는 어느새 물결 따라 흐르기 시작했고 일은 마무리 될 수가 있었습니다. 기분 좋게 서로 어깨를 토닥이며 '고생했습니다!' 라고 웃으며 김장울력을 마쳤던 기억이 선합니다. 보이지 않는 배려로 우리를 이끌어주었던 윗반 스님들과 어려움을 함께 했던 도반이 옆에 있어 행복합니다. 定慧社

# 송광사 천자암 조실
# 신광활안神光活眼 스님



조계산 너머 남쪽, 정상아래 산등성이에 자리한 천자암天子庵  가는 길, 이른 아침부터 내린 진눈깨비가 탐방진의 길을 막아선다. 예전에는 오로지 두발에 의지해 힘들게 걸어올라 왔을 길, 지금은 절 아래까지 포장이 되어 자동차가 올라간다지만 지대가 높고 경사가 심해 이런 눈에도 차는 무용지물이 된다. 역시 도인을 만나려면 공력이 필요한가보다. 절 아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음을 재촉했다. 한 겨울 매서운 바람을 뜨거운 호흡으로 되새기며 오르길 10여 분, 천자암을 굽어보며  800여 년의 세월을 이겨낸 향나무 한 쌍이 신령스러운 자태를 드러내며 일행을 맞는다. 당나라 왕자였던 담당국사가 고려의 보조국사의 법력에 감화되어 이곳까지 동행하며 내리꽂은 두 개의 지팡이가 꽃을 피워 지금에 이르렀다는 쌍향수雙香樹이다. 쌍향수는 천연기념물(88호)로 지정되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천자암의 보물이다. 그러나 정작 진짜 보물은 따로 있다. 바로 지난 30년의 세월을 이곳에 주석하며 한결같은 눈 푸른 납자로 살아오신 신광활안神光活眼 스님이시다.

〈편집자 주〉

통현일할만기복通玄一喝萬機伏
언전대기전법륜言前大機傳法輪
법계장월일장명法界長月一掌明
만고광명장불멸萬古光明長不滅

진리에 통하는 한 번의 할에 온갖 번뇌, 망상 굴복하니
말 이전에 한소식이 법륜을 전하네
삼라만상 한 손바닥에 밝았으니
만고의 광명이 길이 빛나네.
- 활안스님의 오도송 -

활안스님은 전생에 필연적 출가의 연이 있었던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자신마저 큰 병을 얻는다. 이에 생의 의미와 죽음의 이유를 알고자 월정사로 출가를 단행하고 제방의 선원을 거치면서 수십 안거를 성만하신다.

그러던 어느 날, 광양의 백운산에 마련한 수행처에서 품고 참구하던 화두인 '생멸미생전生滅未生前 시심마是甚磨'의 의미를 마침내 철견하고 오도송을 읊으신다. 이후 지금의 천자암으로 오신 스님은 지난 30여 년을 한결 같이 기도와 참선, 그리고 울력으로 수행정진 중이시다. 세납으로도 82세, 이젠 쉬실 만도 한 나이, 그러나 스님에게는 그저 남의 얘기일 뿐이다. 언제나 초심자와 같은 일상을 꾸려갈 뿐이다.

이날 당신을 만나러 조계산을 넘어온 후학들을 처소인 염화조실에서 제접提接한 스님께서는 법문 하시는 내내, 자신의 말 부리에 걸려 헛발질을 일삼는 일행에게 애정 어린, 그러나 매서운 '할'을 좀처럼 거두지 않으셨다.

(이하 활안스님의 법문입니다.)

"이 세상에 모자라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라도 엄밀히 분석하면 그이는 알고 모자라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모르고 모자라는 사람이다. 알고 모자라는 사람이나 모르고 모자라는 사람의 기본 원리는 같아. 한 생명의 기상의 대상이고 근원이거든. 스님한테나 부처님한테 삼배를 하잖아. 삼보에게 절을 하는 거지.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생명의 기본 본질이 되어가지고 생명은 결정을 하고 자연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제공권이 없다 이거야. 자연법에 절 세 번으로 신고하는 거거든. 내가 타고난 심성이 근거가 없이, 그러니까 상대가 아니잖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대가 아니고 방법도 없거든. 그 심성이, 마음이 하자 없이 단번에 밝을 때 천지는 제2호가 되고 본인은 제1호, 주도권이 되어서 천지자연에 영원히 되풀이되지 않는 빛이 나고, 말하자면 성불하는 거지. 단번에 밝을 때 천지의, 생산해내는 그 원인, 그 밝음이 되고, 그 힘인 자연의 역량이 되고 그 나머지는 큰 데로 적은 데로 뒤처리가 하자가 아닌지라… 요렇게 말하면 봄 계절, 여름 계절, 가을 계절, 겨울 계절 그 말 아닌가. 그렇지?

우선 생명의 본질은 자연에 대한 첫 시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마음을 좀 더 깊이 말하면 심성이라 안하나? 제불중생이, 천지자연이 마음에서 다 혜택을 받아 나가는 찌꺼기거든. 마음에서 다, 전체를 다, 한 심로心路에서 천지자연을 거쳐 가는 거야. 지금 보면 사람들이 경에서, 자연에서 자기의 심성을 찾으려고 하니까 힘이 들 수밖에… 아무리 봐도 파초껍데기거든. 아무리 봐도 다 껍데기거든. 아무리 해도 제자리걸음이고…

그런데 마음이 딱 근본이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단번에 밝아지면 이것이 근거가 되어가지고 경을 보거나 자연을 보면, (들고 있던 염주를 탁 치며) 요거여 요거. 상대성이 끊어지거든. 서로 대결이 끊어지거든. 그렇지? 갈수록 빛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밥을 한 그릇 올려놓고 대예참례大禮懺禮를 하잖아. '지심정례공양至心頂禮供養 상주법계常住法界 진언궁중眞言宮中 반야해회般若海會…' 참으로 말하는 근본 가운데 반야의 경지에서, 마음의 경지에서 '원명일여圓明一如 화장도華藏都…' 그러니까 단번에 밝아야 우주 전체가 활성화가 되고 시작이 되고 뒤처리도 된다. 이 말이 수사가 맞나? 안 맞나? 그렇지? 이 말이 굉장한 말이거든. 그래서 '화장도'라. '불가설不可說 마니보운장엄摩尼寶雲裝嚴'이라. 치장할

수 없는 나의 자성자리가 천지보은장엄을 이루었거든. 그 다음에 '아승지阿僧祇 광명光明'이라. 숫자라. 순서를 말하는 것이고 순서가 하나하나마다 근거가 확실해가지고, 그 '주망간착珠網間錯'이라고 하거든. 그 다음은 '현환무애顯煥無涯'다. 끝도 한도 없이, 다 보이지 않는 씨앗이 우주의 대동 태허 원인을 요렇게 번영을 하고, 끝없이 번영자체가 또 번영하고 번영으로 흘러간다.

이러고 보면 이것저것 외어야, 우선 밝아야 안 되겠나?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보면 다 완성된 사람은 이 말에 해당이 안 되고 좀 불평으로 이걸공걸以桀攻桀한다면 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고 경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고 율을 제대로 간직한 사람이 없거든. 율은 무엇이 율인가 하면 연꽃잎이 일년 내내 물속에서 있다 나와도 때가 안 묻거든. 그것이 율이거든. 하는 것 있고 안하는 것 있으면 그건 병신 육갑하는 것이거든. 아무리 해봐야 완성해봐야 모자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또 말 그대로가, 바로 보는 그대로가 경이고, 그대로가 선이고, 그 세 가지가 일망타진 되면 아까 내가 말한 자성자리가 중심이 서거든.

무엇이 중심이 서냐 하면, 무인도에 가서 만약 불이 없으면 나무를 주워서 쓱 갈은 풀에 대고 비비면 불이 일어나지? 선도 다하고 경도 다하고 율도 다하고… 이 세 가지로 발을 딛고 서있는데서… 그러면 중심도 없어. 특별한 중심이 없어. 다 중심이야. 그러면 내가 단번에 밝는 것이 목표다, 시선이 단번에 밝는 것이 목표다 하고 선택을 하거든.

그런데 그놈을 다시 반복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자연도 좋고 종교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나와 상대도 다 좋지만 그것은 필수조건이고… 원 근본은 밝아야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망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끝에 가서 다 한이 있거든. 성공한 사람은 더 많은 성공을 원할테고 망한 사람은 그것을 성취해서 망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생각을 할 테지? 그렇지?

그런데 무엇을 기점으로 삼았냐 하면, 밝은 이놈은 한계가 없거든. 허공에 한계가 있나? 없지? 그래서 아무래도 초점이 밝아야 되겠지? 우선 첫째, 식별해야지. 자기 것인지 남의 것인지, 먹어야 할 것인지 안 먹어야 할 것인지…그렇지? 밝은 이 놈이 식별에 하자가 없어야

밝은 요놈을 분석하면 다시 또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분석하면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근거가 없어. 그러니 상대가 아니지. 그러니 방법도 없지. 생각해봐. 숨을 쉬는데 주위의 제한이 있는가 없는가? 없지? 숨을, 호흡을 몇 번 해라 그러는 제한자가 없지? 지구가 공전 자전해도 옆에 책임자가 없지? 대동태허의 회전, 자전에도 관리자가 없잖아.

없이 번영자체가 또 번영하고 번영으로 흘러간다.

이러고 보면 이것저것 외어야, 우선 밝아야 안 되겠나?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보면 다 완성된 사람은 이 말에 해당이 안 되고 좀 불평으로 이걸공걸以桀攻桀한다면 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고 경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고 율을 제대로 간직한 사람이 없거든. 율은 무엇이 율인가 하면 연꽃잎이 일년 내내 물속에서 있다 나와도 때가 안 묻거든. 그것이 율이거든. 하는 것 있고 안하는 것 있으면 그건 병신 육갑하는 것이거든. 아무리 해봐야 완성해봐야 모자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또 말 그대로가, 바로 보는 그대로가 경이고, 그대로가 선이고, 그 세 가지가 일망타진 되면 아까 내가 말한 자성자리가 중심이 서거든.

무엇이 중심이 서냐 하면, 무인도에 가서 만약 불이 없으면 나무를 주워서 쓱 갈은 풀에 대고 비비면 불이 일어나지? 선도 다하고 경도 다하고 율도 다하고… 이 세 가지로 발을 딛고 서있는데서… 그러면 중심도 없어. 특별한 중심이 없어. 다 중심이야. 그러면 내가 단번에 밝는 것이 목표다, 시선이 단번에 밝는 것이 목표다 하고 선택을 하거든.

그런데 그놈을 다시 반복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자연도 좋고 종교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나와 상대도 다 좋지만 그것은 필수조건이고… 원 근본은 밝아야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망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끝에 가서 다 한이 있거든. 성공한 사람은 더 많은 성공을 원할테고 망한 사람은 그것을 성취해서 망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생각을 할 테지? 그렇지?

그런데 무엇을 기점으로 삼았냐 하면, 밝은 이놈은 한계가 없거든. 허공에 한계가 있나? 없지? 그래서 아무래도 초점이 밝아야 되겠지? 우선 첫째, 식별해야지. 자기 것인지 남의 것인지, 먹어야 할 것인지 안 먹어야 할 것인지…그렇지? 밝은 이 놈이 식별에 하자가 없어야

밝은 요놈을 분석하면 다시 또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분석하면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근거가 없어. 그러니 상대가 아니지. 그러니 방법도 없지. 생각해봐. 숨을 쉬는데 주위의 제한이 있는가 없는가? 없지? 숨을, 호흡을 몇 번 해라 그러는 제한자가 없지? 지구가 공전 자전해도 옆에 책임자가 없지? 대동태허의 회전, 자전에도 관리자가 없잖아.

생활, 일과에 상대방에게 다 갖춘 차원의 인격이라고 평가받고 본인은 또 보람을 느끼고 그렇지?

밝은 요놈을 분석하면 다시 또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분석하면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근거가 없어. 그러니 상대가 아니지. 그러니 방법도 없지. 생각해봐. 숨을 쉬는데 주위의 제한이 있는가 없는가? 없지? 숨을, 호흡을 몇 번 해라 그러는 제한자가 없지? 지구가 공전 자전해도 옆에 책임자가 없지? 대동태허의 회전, 자전에도 관리자가 없잖아. 다시 돌아와서 전체 동물, 전체 식물, 생각

천자암 쌍향수(천연기념물 제88호)

할 수 있는 것은 다 생명의 연관성 아닌가. 그 생명들이, 생명의 본질이란 한마디로 호흡이 필요하잖아. 생명을 유지해야 하니까… 호흡을 하는데도 관리자나 제한자가 없잖아. 돌멩이 하나 풀 한포기 벌레 하나에 이르기까지 생명은 개별로나 전체로나 우주 공간의 단독권한이여. 그러니까 쓸 줄 아는데 1호가 있고 2호가 있고 3호가 있고 그러지.

'사지원명四智圓明'이라고 그런 말 있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원경지大圓鏡智'는 근거가 없고 '평등성지平等性智'는 심소가 없고 '묘관찰지妙觀察智'는 하자가 없고…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 다음은 '성소작지成所作智'거든. 어디든지 가서 자기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놈은 또 근거가 되가지고 뒤처리를 해서 태허를 안 이루나? 그래 안 그래. 너희들 현행 생활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음, 심상 이외에는 전부가 상대성이야. 존재의 근거가 다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심상은 근거가 없다고 안했나. 그런데 한 장, 한 생명의 다 끝나면 내 것이라는 것은 명분이 없잖아. 아무것도… 그렇지? 그래 안 그래? 있다면, 그랬더라면, 망해도 성공해도 그랬다는 그것은 그저 불은문자거든. 그것뿐이거든. 그렇지? 다른 것 다 내 줘야하고… 그래서 결정한 본本은, 자연은, 모든 생명이 걸어오는 과정에 뒤를 돌아다보면 자연의 덕으로 살았고 자연의 혜택이 막중하다고 누구든지 말하지. 선하고 악한 이를 막론하고…

그렇지? 그런데 역시 자연을 분석해보면 자연도 근거가 없어. 자연이 자기 몫이라 있다면 생명이 견뎌내질 못하거든. 생명이 요청하면 무심으로 제공을 하거든. 태양도 자기 몫이 있다면 생명이 견뎌내질 못해. 무변대해도, 물도 자기의 몫이 있다면 생명이 견뎌내질 못하고 바람도 자기 몫이 있다면 생명이 견뎌내질 못하고… 아까 내가 생명은 다 산소호흡을 한다고 안했나? 그것도 자기 몫이 있다면 생명이 견뎌내질 못하거든. 생명의 본질 마다 단독권한이나 그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자연의 보충을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다 이 말이야.

옛날 예수란 사람은 '내 말 들어라' 했기 때문에 피살당한 거거든. 돌멩이 하나, 풀 한포기, 벌레 한 마리까지 그 생명은 천지자연에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야. 그러니 내말대로 계산 안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예수가 사람은 좋은데 소갈머리가 없어서 '내 말 들어라' 했기 때문에 피살당한 거야. 반대로 나는 이 시대에 내 몫은 하나도 없이 난 보충의 대상으로 이 세상에 왔다고 했다면 지금 그 나라 역사가 다를 것이 아닌가. 평화가 이루어 졌을 것 아닌가. 내말이 맞나 안 맞나. 그런데 불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들은 모두 중간말만 해놨지 끝도 없고 시작도 없거든. 그래서 병신 육갑한

다는 거야. 지금의 과학만도 못해. 과학은 근거가 있잖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그러나 과학의 흠처가 어디에 있나하면 현실을 직시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뒤처리를 못해. 마음은 고립당하고 마음은 근거가 되어서는… 뒤처리가 하자가 원래 아닌데… 일년 계절이 연결해서 다시 또 그 힘이 안 나오나. 그렇지? 너희들 들어봐라. 내가 이래뵈도 모르는 건 많아도 아는 건 뚝! 소리 난다. 너희들 학인이니까 '삼도고본인하기三途苦本因何起'요 '지시다생탐애정只是多生貪愛情'이라고 이런 말을 알지?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에 있지? 삼도는 지옥이 1호가 되지. 아주 큰 고통을 당하니까… 아귀는 2호가 되고… 불만 있으니까… 3호는 꽉 막혔기 때문에 축생이 되고… 미련하면 축생이라고 안 하나? '삼도고본인하기三途苦本因何起'의 대답은 과거 이래로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좋고 나쁜 것을 관리하다보니까 자기 심성을 고립당하거든. 그래서 고통이 생긴 것이야. 심성이 주가 되면 삼도의 고통 근본이 이내 법신, 보신, 화신으로 거듭날 것 아닌가.

다시 돌아와서 이 세상에 만년을 살아도, 천년을 살아도, 백년을 살아도, 잠깐을 살아도… 사실 생명은 잠깐이야. 하여간 내 것은 하나도 없는데 참으로 남는 것은 무엇이냐… 우선 판단력만 남아야 되겠다! 이것이지. 옳고 그름을 내가 간직할 줄 알아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우선 밝아야 한다…

그러나 판단력의 근거를 찾아보면 또 근거가 없거든. 마음이 주主고 또 단독권한 아닌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래서 멋있는 양반이라고 하는 거야. 아무리 봐도 배신할 수 없거든. 석가모니를 배신하려면 자기 마음부터 배신해야 하거든. 그래서 그 양반은 멋있는 양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실무자는 석가모니를, 자연을 이전에 내 본성부터 딱 근거가 되어 가지고, 중심이 되어가지고 노력을 하면 하자가 아니거든. 순서를 봐서도, 원리로 봐서도…

그래서 잠깐 살다 가는 몸에 그 놈을 갖다가 단번에 밝혀야 되겠다고 선택이 돼. 그래서 그 놈이 뇌파에다 입력을 하면, 그 다음은 다 설명했으니 말할 건 없고, 숨을 내쉬고 회전 자전에 노력공로와 보고 듣고 부딪치는 공로가 내가 심정에 단번에 밝은 데 하자 없이 밝은 데 그 밑받침이 되겠다. 그러고 따지면 시간과 공간이 이뤄지기 이전에 모습도, 현재도, 미래도, 거기에 자기 그릇대로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 밑받침되어 있거든. 알았지? 그래서 사람이 개념만 선택이 되면 이렇게 된다.

과거 조사스님이 말하길 '크게 이루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마음의 선택에 달렸다' 그게 조사어록에 있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러게 되면 진리를 빌린 이는 할 일이 없어. 마음의 선택에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져 버리니까. 그렇기 때

도를 닦는 것이 아니야. 저놈 죽일 놈 하고 한번 선택이 일어나면 그 다음엔 방법이 생기거든. 좋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단번에 밝아야겠다는 것을 머리에다 입력해서 혼선만 일으키지 않으면, 그것은 닦는 것이 아니고 쌓는 것도 아니라서 정해만 놓으면 모든 공로가 뒷받침이 된다. 노력한다는 것은 제 삼호에도, 이호에도 해당 안 돼. 원리를 따지면 그래. 알아들었지?

문에 심성에 근거가 없이 단번에 밝혀야 하겠다고 그 주위의 환경을 여건을 머리에다가 딱 입력을 해서 한평생 혼선만 일으키지 않으면 돼.

도를 닦는 것이 아니야. 저놈 죽일 놈 하고 한번 선택이 일어나면 그 다음엔 방법이 생기거든. 좋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단번에 밝아야겠다는 것을 머리에다 입력해서 혼선만 일으키지 않으면, 그것은 닦는 것이 아니고 쌓는 것도 아니라서 정해만 놓으면 모든 공로가 뒷받침이 된다. 노력한다는 것은 제삼호에도, 이호에도 해당 안 돼. 원리를 따지면 그래. 알아들었지? 그래서 한평생 혼선만 일으키지 않으면 한 생이 다 끝나고 다시 태어나면 성불할 수 있는 사주팔자를 안고 나온다 이거야. 왜? 마음을 지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천지 우주공간에 생명을 관리할 수 있는 인격을 타고 나는 것이야. 이 말은 우주공간의 제불중생에게 모두 필수조건의 말이야. 아는 사람도 기억을 해서 활용해야 하고, 모르는 사람도 이 말을 중심으로 해서 근거가 되어야 밝아지고… 알았지? 그런데 몸이 그릇이 크면 그처럼 방대하고 위대하고, 몸이 그릇이 불확실하면 천지자연과 대동태허가 나와 상대가 모두 병원이라도 마음하나를 금치를 못해. 알겠지?

얘기는 이만큼 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여기다 딴소리하면 너희들이 나를 깔봐. 너희 자체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공부인들이, 자기 마음의 중심이 안선 사람이 부처님 같은 변재辯才를 다 늘어놓잖아. 그런데 영리한 상대라면 그런 이야기는 나도 하는데 그러면 끝나버려. 허탈하고… 그렇지 않나? 그래서 본인이 중심이 딱 서면 말끝나기 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차단 되어버려. 그 사람 말 안들을 수 없어. 이제 그만하자."

선사禪師의 '말하기'는 기실 범부중생과 달랐다. 머리를 굴려 이해하려 용을 쓰면 좀체 의미가 잡히지 않고 이제는 겨우 의미를 알만하다는 회심의 미소를 지을 즈음이면 스님의 말은 또 다시 저만치 앞을 내달려 은산철벽과 같이 막아선다. 스님만의 습관일까. 말의 시작과 끝이 뜬구름과 같이 부유하여 종잡을 수 없었고 또 주어와 목적어가 도치되고 주격, 목적격 조사들이 뒤섞여 그 맥락을 간파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단지 어법에 서툰 말이라고 스님께서 전달하려는 의중의 전체까지 서투르게 단언하고 평가한다면 몇겁 생을 다시 태어나도 성불成佛은 요원하리라. 스님이 말은 말이지만 머리로 이해하면 스님의 의중과는 십만 팔천 리 보다 더 멀리 떨어진다. 내내 그랬다.

머리를 쓰는 일은 대상을 분별하고 그 분별을 바탕으로 일의 '뒤처리(활안스님께서 잘 쓰시는 표현이다)'를 한다. 사유하여 규정하고, 인식하고 개념을 세우는 모든 일이 그렇다. 인간이라는 존재, 그 의식이 꾸려짐은 이러한 대상 분별로 자신과 객체를 끊임없이 교차하며 망상을 정당화하고 번뇌를 고착화한다. 이날 망상과 번뇌 덩어리를 안고 천자암을 향했던 후학들은 스님께서 해주신 '일갈법문'을 차마 손을 대 훼손할 수가 없다. 그럴 능력도 재주도 없으며 용기도 없다. 스님의 말씀을 오롯이 내 것으로 만드는데 '이심전심'이 있다지만 그것은 현생의 수행으로 복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다음 생에서나 가능할지 모른다. 단지 눈이 있어도 자신의 앞을 보지 못함을 탄식하며 스님의 말씀을 원문 그대로 옮겨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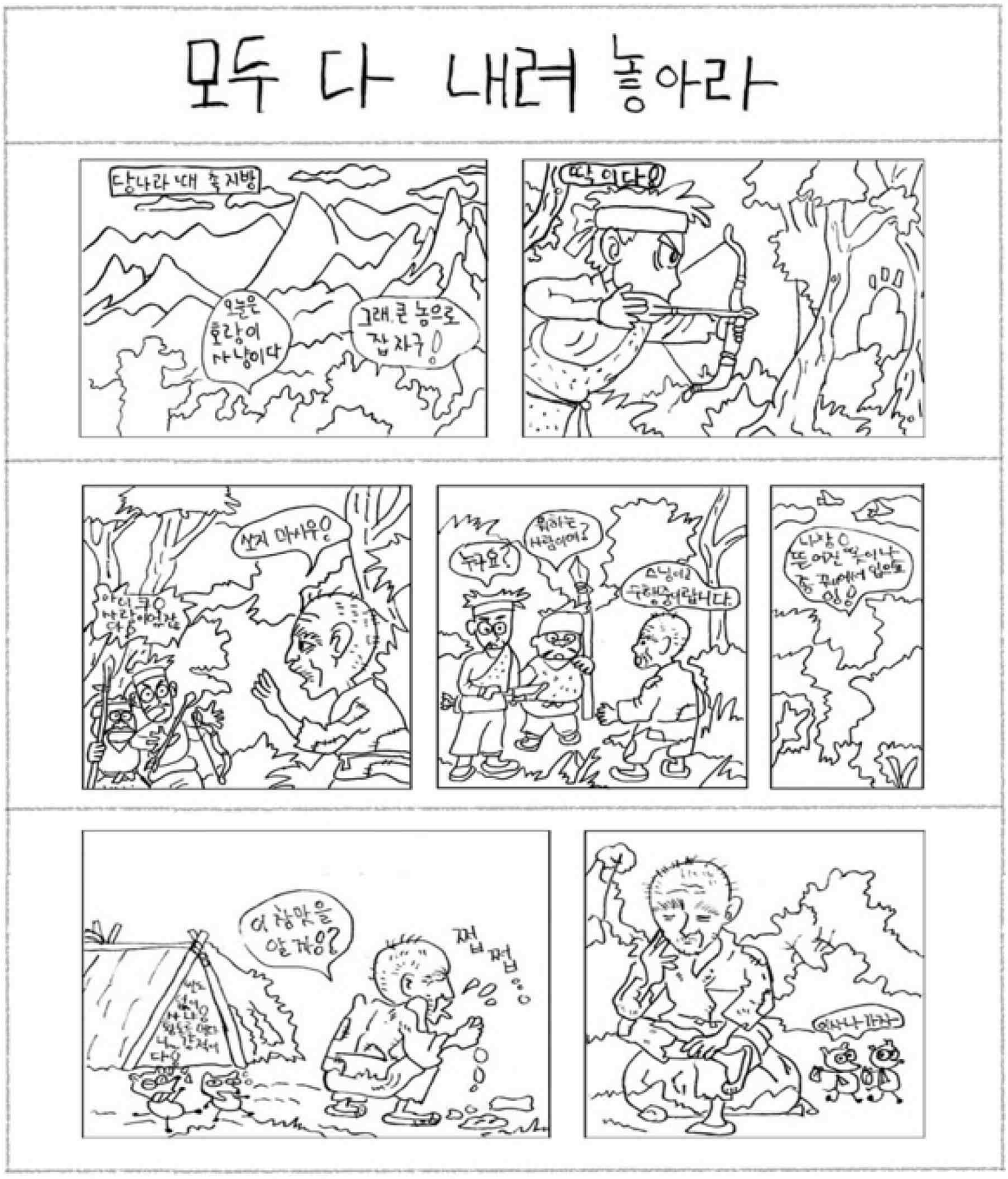
이 글을 읽는 눈 밝은 이, 말길이 끊어진 자리에서 스님의 마음과 계합하리라. 定慧社

취재 | 편집실

목우만평

# 방하착放下着

글·그림 상국床國 | 사집



무상선 사님이 산에서 내려 오셨다나 봐요?
뭐든 일이 났나봐요?
우리도 같이 가 볼까요?
무억, 계억하지 말라, 무념, 생각하지 말라, 막망, 망상하지 말라~
도대체 무슨~!? 소리여~
모두 다 내려 놓으란 말이다~
빡 빡
옴~ooo

# 나날이 즐거운 불교공부

덕인德印 | 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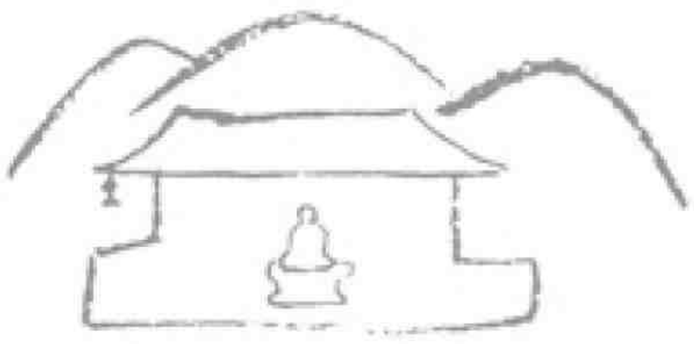
불문에 들어와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몸이 지수화풍 사대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처음 이 사실을 접했을 때 나는 마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천지창조 때 인간을 진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만들었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졌었다. 진흙 속에도 물이 있고 무언가를 입으로 불면 열기와 바람이 전해지니까 말이다.

그래서 나는 한때 이것이 불교의 미신적 요소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우연히 〈무상게無常偈〉에서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요소들이 지수화풍으로 흩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 사람의 몸이 정말 지수화풍으로 된 것이로구나!' 하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뒤 얼마 후 나는 사람의 몸이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좌선을 하던 중 나는 '몸이 어떻게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는데 문득 '아! 몸은 밥을 먹어서 생긴 것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곰곰이 더 생각을 해보니 밥은 곧 쌀이고 쌀은 벼의 뿌리여서 흙 속의 영양분과 물을 흡수하고 잎에서 햇빛(火)과 공기(風)를 받아들여 벼의 몸 속에서 이들 지수화풍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쌀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해가 되었다. 바로 중고등학교 시절 배웠던 생물학이 곧 불교 입문이었던 것이다. 내가 좌선 중에 떠올렸던 이러한 생각들이 사념처 수행 중의 '신념처身念處'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불교를 깊이 있게 알아갈수록 점점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접하게 될 때 흔히 내면에서는 그것들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해 이해가 더욱 어렵게 되고… 그러나 이해가 비록 안 되더라도 일단 믿음을 가지고 보면 나중에 어떤 인연으로 인해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 확실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불교공부에서 믿음은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나는 요즘 십이 연기를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 근본불교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어간다. 이렇게 깊고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주신 부처님께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샘솟는다. 定慧社



# 수석정

능엄楞嚴 | 사집

송광사에는 포행길이 여러 군데 있다. 그 중에서 후원 뒤쪽으로 돌아가면 우리들이 자주 이용하는 길이 나온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는 대나무 숲을 지나 천자암, 선암사로 향하고 다른 한길은 '스님 외 출입금지' 라는 표지판이 걸려있는 길로 나게 된다.

'스님 외 출입금지' 라는 길을 따라 들어가면 버섯 키우는 밭이 나오고 그 길을 지나면 갑자기 시야가 확 트이면서 작은 폭포 옆에 있는 '수석정' 이라는 정자 하나가 나온다. 일반인들은 송광사에 자주 와도 이런 곳이 있으리라곤 생각 못했을 것이다. 수석정에서 스님들은 쉬기도 하고 운동하면서 땀을 흘리기도 한다. 특히 사물을 연습하는 장소로 쓰이는데, 우리가 예불 전에 볼 수 있는 장엄한 법고 소리는 스님들이 그곳에서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이다.

돌 징검다리를 건너면 대웅전만한 잔잔한 호수가 나온다. 대중 속에서 살다가 좀 들뜨거나 혼란스러울 때 잔잔한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다. 가끔 돌을 던져서 멀리 퍼져 나가는 동그라미를 보고 있을 때도 있다. 그 호수 제일 안쪽에는 작은 폭포가 있는데 여름에 비가 온 후에는 제법 소리를 크게 낸다. 우리는 폭포 앞에서 염불연습을 하기도 한다. 가끔씩 끌어 오르는 열정을 식히지 못해서 폭포에 가서 괴성을 한바탕 지르는 스님도 있다.

한여름이 다가오면 수석정 들어오는 길에 '발' 로 게이트가 쳐지는데 '스님 외 절대 출입금지' 라고 써 붙여진다. 왜냐하면 물이 한참 불어나면 스님들이 그곳에서 한여름의 더위를 식히고자 목욕을 하기 때문이다.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산중에 스님들이 홀딱 벗고 목욕하는 곳이 있는 줄은 출가해서 처음 알았다. 맑은 물을 첨벙거리면서 해맑게 웃는 스님들을 볼 때면 참 천진난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속에 토어(?)가 많은데(지눌 스님이 생선을 드셨다가 다시 토해내니 다 살아서 가더라는 일화가 있다)그 놈들도 해치는 사람들은 없고 만날 먹을 것만 던져주는 스님들이랑 살아서 그런지 수영할 때면 무서운 줄 모르고 스님들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온다. 목욕하려고 갈 때 규칙상 두 명 이상 함께 가야하고, 낮에만 가야 하는 제약이 있지만 가끔 자다가 도저히 못 참고 달빛 아래서 첨벙거리고 오는 스님들도 있다. 선풍기도 없는 송광사이기에 한여름 법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무사히 하안거를 회향하는데 수석정이 한몫을 단단히 하는 셈이다. 그렇게 수석정은 송광사 스님들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다 받아주는 또 하나의 법당이다.

여름 한철 뜨거웠던 수석정도 가을이 오면 알록달록하게 물이 든다. 한쪽 길은 등산객들로 북적거릴 때 이 길은 스님들에게 차곡차곡 나뭇잎을 쌓아놓고 차분하게 가을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겨울이 되어 눈이 온 수석정은 스님들의 발길도 뜸해진다. 물고기들도 먹을 것을 줘도 잘 안 먹고 법고 연습하러 오는 치문반 스님들도 없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 호수가 어는데 좁지만 그곳에서 썰매를 타는 것도 재미가 쏠쏠하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조용하다. 그럴 때면 나도 가만히 앉아 겨울나무들을 보고 있다. 그러면 자연과 함께 내면으로 조금씩 야물어 가는 소리가 들리는 이내 마음에 보리심의 새싹이 어서 자라나 이 수석정처럼 고통 받는 모든 존재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스님이 되기를 합장 발원해 본다. 定慧社

특별취재

## 한국불교의 미래 어린이법회를 찾아서

*매주 일요일 오전이면 송광사 도량 어디선가 어김없이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의 정체는 바로 대웅전의 부처님께 삼배를 드리기 위해 발길 중인 송광사 어린이법회에 참석하는 아이들이다. 법회지도 선생님의 인솔 하에 모두들 들뜬 얼굴로 대웅전으로 들어간 아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한 듯, 조용히 그리고 예의바르게 부처님께 공손히 삼배를 드렸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앞에서 보여주는 어른 신도님들 못지않은 진지한 기도모습과 여법함은 보는 이를 절로 흐뭇하게 만든다. '정혜사' 이번호는 미래의 한국불교를 짊어지고 갈 어린 부처님들을 위한 전법현장을 따라 가보았다.*

*- 편집자주*

일요일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승합차 3대가 송광사 인근 후곡과 왕대마을, 장안, 우산리 이렇게 네 군데로 운행되어 어린이들을 태워온다. 송광사 도착 후 대웅전에서의 부처님에 대한 간단한 예경 후 어린이 법당으로 온 아이들은 10시가 되자 법회가 시작되기 전 간단히 입정에 든다. 이 시간에는 중고등부 회원들이 법사스님의 옆에서 아이들의 입정을 도와준다. (참고로 아이들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은 저학년, 초등학교 3, 4, 5, 6학년은 고학년, 중고등학생은 중고등부로 나뉘어 반이 형성된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라 입정이 쉽지만은 않은 법, 여기저기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는 모습이 눈에 띈다.

법회의 첫 번째 식순으로 시작된 예불이 끝나자 법사스님인 사집반의 지성스님은 장난을 치며 소란을 피우는 천진한 아이들을 엄하게 때로는 장난을 치며 어수선한 분위기를 가라앉힌다. 이어지는 삼귀의. 소란하고 어수선한 분위기이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큰 목소리로 다들 잘도 따라 부른다. 다음은 반야심경봉독. 보고 있노라면 '과연 잘 따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익숙하지 않은 한자음의 반야심경을 어렵지 않게 잘도 입을 맞춘다.

이윽고 시작된 석가모니불 정근에서 몇몇 친구들은 법사스님의 창불에 맞춰 익숙하게 절을 하고 몇몇은 앞에 있는 복전함에 보시금을 넣기도 한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 참으로 기특해 보였다. 또 어린이 5계와 발원문을 법당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따라 읽고, 찬불가 '찬양합니다'와 '청법가'를 즐거이 노래 부른다. 법회 가운데 아이들에게 가장 지루한 시간인 엄숙한 입정시간. 아이들의 소란이 도를 조금은 지나쳤을까.

입정 중인 어린 부처님들. 자못 진지하다.

지도법사스님 왈 "너희들 계속 떠들면 입정 30분 동안 한다" 이 한마디의 효력은 강했다. 이 한마디에 모든 아이들이 조용해지고 말도 고분고분 잘 듣는다. 죽비소리에 맞추어 입정이 끝난 후 법사스님의 법문이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는 주제로 시작되었다. 사실 법문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인지 모른다. 적절히 비유로 드는 옛이야기나 부처님 설화는 귀를 쫑긋 세우게 하고 즐거운 웃음꽃을 만든다. 이날도 아이들은 물론 뒤에서 듣고 있는 선생님들마저도 배를 잡고 웃어가며 법사스님의 법문을 경청한다.

법회는 한 달을 기준으로 첫째 주는 그 달에 생일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생일법회가 있다. 그리고 둘째 주는 어린이 불교학습지 〈연꽃〉을 같이 공부하고, 셋째 주는 독서, 넷째 주는 아이들이 목탁도 치고 염불도 하는 자체법회 시간을 갖고, 다섯째 주가 있는 달은 야외법회를 한다.

오늘 같은 생일법회 때는 1부 법회가 끝난 뒤에 후원에 가서 공양을 하고 다시 내려와 12시부터 2부를 진행하며 선물을 증정하고 생일을 축하하며 다각물(간식거리)을 먹는다. 그리고 그 후에 사홍서원과 산회가를 끝으로 법회는 마무리된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 되면 어린이 법당의 법사스님 방에는 불이 켜진다. 법사스님인 송광사 강원의 사교반 청사, 사집반 지성, 치문반 자용스님이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친 후, 다음 날 있을 법회에 관하여 여

러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오늘은 세분만이 모였지만 보통 대교반부터 치문반까지 법사 소임자 전원이 자리를 함께 한다. 법회진행에 대한 토론을 하다보면 가끔 의견 대립이 되기도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애정 어린 그 마음은 모두 하나같다.

법사스님들의 어린이 법회에 대한 애정이 한마음이어서인지 아이들은 법사스님들의 말을 잘 따른다. 하지만 요즈음처럼 통제가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한 예로 법사 지성스님이 치문반으로 법회를 담당하던 작년만 해도 아이들은 법사스님들의 질문에 대답조차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심지어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건네며 장난을 쳐도 관심조차 주지 않을 정도로 몇몇의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였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니 어린이 법회 소임 자체가 힘들어서인지 스님들이 소임 맡기를 거부하여 이전에는 매 철마다 임시변통으로 법사 소임자를 선별하다 보니 아이들과의 유대감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얼마 전부터 전임으로 어린이 법회 담당자를 선별해서 소임을 맡기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제서야 아이들은 스님들과 가까워지기 시작했단다. 지금은 오히려 아이들이 더 열정적이라고 한다. 아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변하기까지 그동안 법사스님들의 얼마나 많은 인내와 노력이 있었는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았다.

법회 소임자 스님들(우로부터 청사, 지성, 자용)

"가장 보람 있을 때요? 아이들의 생활이 변화하는 것을 볼 때인 것 같아요."

법회에 참석한지 오래된 한 아이를 예를 든다. 오래되어서인지, 법사스님들이 자주 바뀌어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지 못하여서인지 지금의 법사스님들이 왔을 때 물어도 대답도 잘 하지 않고 표정이 항상 어두웠단다. 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그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법사스님께 편지 한통을 건네주었는데 그 아이가 주었던 편지 한통으로 인해 법사스님은 이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그 아이의 마음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여서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반항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상태였단다.

하지만 법회에는 항상 참석하고 법문을 들었는데 언젠가 그 내용에 맘이 끌리더란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실천하였는데 그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사람도 즐거워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 전에는 아무 의미 없이 다니던 법회가 그렇게 재밌어질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법회를 참석하니 자연스레 자신의 전반적인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마음이 안정이 되어 감사하다는 내용들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소임을 보면서 어려움이요? 많죠!"

첫째로 어려운 점은 학인스님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다. 학인스님이라는 신분 때문에 사중스님들에게 법회소임에 대한 의견을 당당히 주장 할 수가 없어 많이 답답해 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데

봉고차 3대가 운행이 되는데 이 차량이 여기저기서 끌어온 사중차량이라 사중에서 쓸 일이 있어 차 한 대만이라도 운행을 나가버리면 법회에 참석하려는 아이들을 데려오는데 있어 곤란함에 처하게 되는데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오늘 법회에는 스님들을 도와 동참한 선생님이 두 분 계셨다. 두 분이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힘들어 보여 몇 분 더 계시지는 않은지를 물어보았다. 법회에 참석하는 고등학생들이 지금껏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들에게도 일요일은 일주일의 피로를 푸는 날이라 집에서 먼 송광사까지 와서 법회를 도와주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이 느껴졌다. 옛말에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 있다. 사실 어린 친구들에게 절은 종교적 행위의 공간이기보다는 다각물을 먹으며 친구들과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써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 많은 친구들과 둘러앉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다각을 하는 재미가 최고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각을 하는 행위가 단순히 아이들에게 여흥의 시간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함께 같은 내용물의, 동등한 양의 다각물을 분배하여 나누는 속에서 서로의 우애를 다져가고 확인하는 그러면서 성장하는 법회의 소중한 일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이 다각물을 구입하는 비용은 사중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어린이 법회에 애정을 지닌 몇 분의 자원봉사자들 또한 지원을 해주시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 새싹들에게 법회를 통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커다란 가르침을 준다. 또한 자비, 보살행을 통한 불교적 심성형성은 아이들 삶의 밑거름이 되며 장차 이 나라의 주역으로 성장해서 사회에 실천적으로 행해질 때 불국토는 한층 더 가까워지는 것이리라.

"어린이법회가 잘 되면, 우리 한국 불교의 미래가 밝아지는데 한몫 톡톡히 할 겁니다."

"보통 어린이 법회를 통해 불교를 접한 아이들은 청소년법회, 대학생법회를 거쳐 스님들과 함께 뜻있는 일을 열어가는 신심 있는 불자들이 많은데요. 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처님 법을 따라 이어진 인연이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자신의 원력을 앞세워 박차고 나가는 신심을 가지기 마련이죠. 이 어린이 법회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이 아이들도 역시 이러한 신심을 배양하게 되어 먼 훗날 우리 한국불교에 큰 힘이 되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 새싹들에게 법회를 통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커다란 가르침을 준다. 또한 자비, 보살행을 통한 불교적 심성형성은 아이들 삶의 밑거름이 되며 장차 이 나라의 주역으로 성장해서 사회에 실천적으로 행해질 때 불국토는 한층 더 가까워지는 것이리라.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실행에 있어서 구체적이지 못했던 어린 이 나라의 새싹들을 위한 전법! 그 실천의 시작은 아이들에게 다가서는 것. 즉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전법, 포교의 시작이며 부처님 나라의 씨앗이 됨을 이번 어린이법회의 취재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 노고를 잊지 않고 어린이 포교에 힘쓰는 법회 소임자 스님들에게 편집부 일동은 커다란 감사를 드린다. 定慧社

바람소리 한자락

# 마지막 선물

본행本行 | 사집

"뚜…뚜…뚜…"

심장박동 계기판에서 나는 소리가 왠지 나의 심장박동소리 같다.

"오늘밤이 고비란다."

할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사실이란 걸 직감으로 알았다. 병상에는 앙상한 뼈와 목숨이란 가는 실 끝에 매달아 놓은 듯한 작은 노인이 누워있다.

"할아버지…"

내가 3살 아니 4살 때인가 옥상 난간 끝에 매달려 어쩔 줄 모르고 울고 앉아있자 어느새 인가 큰 사람이 하늘을 가리며 내 눈앞에 나타났다. 팔을 쭉 내밀어 내 팔을 잡아당겼던 그 힘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언제나 힘들 때 곁에서 힘이 되어줄 것만 같았던 어른이자 나의 의지처…

이젠 오랜 투병 생활로 본인 스스로 팔들 힘조차 없다. 여름 어느 날 집에 계시던 때가 생각났다. 환자용 침상에 두 팔이 묶여있고 다리엔 깁스를 하였다. 이유를 묻자 할머니께서 "밖에 나가려고 대문을 자꾸 만지더니 열리지가 않자 담을 뛰어넘다 저렇게 됐다." 바로 치매가 원인이었다. 그땐 할아버지의 눈에는 내가 손자가 아닌 동네 청년쯤으로 알고 계셨고 항상 나를 보면 돈 벌러 가지고 취직자리 없냐고 지금 밖에 나가야 된다고 보채기 일쑤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단둘이 계시는 집안에서 할머니 혼자 감당해 내기엔 벅차 줄로 손을 묶어 놓으셨다. 다리에 깁스도 했고 못 움직일 테니 손을 푸는 게 어떻겠냐고 하자 얼마 전 요도에 문제가 생겨 방광에 호스를 연결하여 소변을 빼내고 있는데 자꾸 손으로 호스를 빼려고 하신단다. 할머니가 말하길 "예전에 그렇게 나를 때리더니 이젠 나에게 묶여 산다." 잠깐 동안 쓴 웃음을 지었다.

방안에 온갖 약과 변 받아내는 도구, 기저귀, 얼마 전 감기가 오셨는지 가래가 들끓어 그것을 빼내는 기구 등등 내 눈엔 너무나 산만해 보였다. 시간이 흐르자 몸은 더욱 쇠퇴해 지셨고 너무 말라 그렇게 마른 사람은 처음 볼 정도였다. 할머니께선 "왔냐. 느그 할아버지 얼마 못사실 것 같다."하신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육체에 생기가 없어 보였다. 흐리멍덩한 눈, 마른 볏짚 같은 머리카락, 바짝 마른 입술과 갈라진 혀, 근육이란 전혀 볼 수 없고 겨우 살가죽만 붙어 앙상하게 드러난 뼈들, 손목에 묶인 줄을 풀고자 했던 상처의 흔적들 불규칙적인 숨소리, 소변을 볼 수 없어 새하얗게 변해버린 성기, 오래 누워있어 짓무른 엉덩이와 등짝…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그렇게 몸을 보고 있다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힘이 없어 말씀은 할 수 없으셨지만 무언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다. 비록 초점 없는 듯한 눈이지만 분명 내 눈을 보고 있었다. "얘야 왔냐. 이 할애비가 갈 때가 온 것 같구나. 하지만

잘 봐라 이게 내 모습이다. 나도 너처럼 10대 20대 30대를 거쳐 칠순을 넘겼다. 나도 한때 꿈이 있었고 누군가를 사랑도 해봤고 원수처럼 싫어한 적도 있었고 둘도 없는 친구도 사귀어 보았고 누군가에게 배신도 당해봤다.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직장도 가져봤다. 어렸을 땐 곧잘 총명하다는 소리도 듣고 커서는 성실하다는 칭찬도 많이 들었다. 때론 능력이 없어 남에 무시도 당하고 화날 땐 싸움도 많이 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몇날 며칠을 고뇌와 고민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있었다. 세상의 온갖 감정들은 나도 다 느껴보았고 즐거움과 괴로움 따위도 수없이 오고 갔다. 그리고 지금의 난 이렇게 누워있다. 내 눈을 피하지 마라! 내 몸을 샅샅이 봐라!!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줄건 이것밖에 없구나…"

순간 난 내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환청이었을까 아님 혼자만의 상상이었을까. 분명 할아버지는 나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 잠깐 생각에 빠져있는 사이 할머니께서 변을 치우고 계시길래 옆에서 거들어 주었다. 변을 본다고 표현하기보단 흘러나온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양이 제법 많다. 그 또한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구역질이 나오려다 할머니가 볼까봐 얼른 가렸다. 부끄러웠다. 아들 며느리가 많이 있어도 혼자 병수발 하시는 할머니, 아파 누워있는 할아버지. 이 두 분에게 자식이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일요일 새벽 전화가 왔다.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할머니의 쉰 소리에 비해 난 너무나 담담했다. "오전에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잠깐 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다. 아직 죽음에 대한 나의 시각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인가. 장례식장엔 못 보던 얼굴들이 많다. 꽃들도 많이 왔다. 장남이신 아버지의 초췌한 모습도 보이고 철없는 어린 동생들의 떠드는 소리도 들린다. 싸늘한 시체로 누운 노인의 얼굴이 보인다. 이 노인이 정말 나의 할아버지인가 아님 할아버지의 모습을 한 껍데기인가. 삼베로 만든 두건. 그것이 마지막으로 얼굴을 감싸는 순간 주위의 모든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울지 않는다. 관속으로 시체를 옮기고 가족들은 모두 나왔다.

산소로 가던 날 유난히 날이 추웠다. 땅속으로 홀로 들어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편안해 보였다. 춥고 쓸쓸하겠지만 세상살이보다 춥고 쓸쓸할까. 나도 모르겠다. 아마도 나와 같은 사람이 풀어야 할 숙제인가 보다. 여동생이 나에게 물었다. "오빠는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안 슬퍼?" 난 그냥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신게 아니란다. 할아버지는 선물을 주셨어. 죽음이라는 선물을…'

그해 가을이 찾아올 무렵 난 출가하였다. 定慧社

# 학인의 외출

시관是觀 | 사집

몸이 아파서 신병치료가 부득이한 경우나 소임상 필요할 경우가 아니고서는 학인의 신분으로 안거 중에 외출하기가 쉽지 않다. 신병치료와 소임상 외출도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다 같이 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도 여러 번의 보고절차를 거치고 나서 가능하다.

승가에서 대중생활은 세속에서 물든 것이 많은 본인에겐 쉽지 않았다. 우선 아주 생소한 승가의 문화와 생활방식 또 지시 명령적인 윗반 아랫반의 체계와 도반스님들 사이의 사고방식의 차이로 생기는 마찰, 그 모든 것이 하루도 쉼 없이 갈등하게 하였다. 누가 가래서 온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온 것도 아니요, 여기서 누가 잡은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 무엇이라는 한 생각이 나를 지금도 여기에 있게 하는지 모른다. 강원생활에서 외출은 특히 아랫반 스님들에게는 마음속의 하나의 위안처일수도 있다. 외출할 때 여러 번의 보고와 또 들어와서 번거로운 보고절차에도 외출하는 것에는 별로 개의치 않는가 보다.

오늘도 정기외출이 있는 날이다. 일찍 수업을 마치고 서둘러 몸을 차에 실었다. 나가서 무엇을 할까. 뇌리에는 시시각각으로 그림이 스친다. 달리는 차창가로 펼쳐진 겨울풍경은 내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하고 들뜬 기분은 달리는 차만큼이나 바쁜 것 같다. 마침내 달려서 다다른 곳이 순천시내 한복판 서로 각자 차에서 내려 뿔뿔히 흩어진다. 각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갈 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흩어지기에 바쁘다. 그리고 잠시 후 뒤끝이 보이지 않는 시점에서 오는 도중 생각한 어떤 곳을 향하여 나도 어디론가 떠난다.

그러나 막상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갈 곳도 머물 곳도 마땅치 않다. 이것이 무엇이람. 가는 곳마다 나에게 시선이 모아지고 어디 간들 시선이 끊이지 않는다.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다른 장소… 들어가 이리저리 둘러보니 웬 반짝이는 머리들. 잠시 후 어디에선가 소리가 들려온다. "어 이 스님~" 하는 것이 처음 차에 내릴 때에는 뒤도 안돌아보고 가더니 간곳이 고작 이곳이다. 이제는 더 이상의 약속의 말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았다. 그렇게 다시 만나 뜻이 모여진 것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로 하였다. 그런데 서로들 말이 많다. 무엇을, 어떤 것을, 어디에서. 아이구~ 힘들다. 그럼 각자 취향대로 가자. 옛말에 '이 세말은 지고 가도 중 셋은 함께 가지 못한다' 고 했던가. 마음에 아쉬움을 먹고 각자 주린 배를 채울 어디론가 사라진다.

이제는 어디로 한발 한발 딛는 돌은 있지만 머무를 돌은 없는지 어디에선가 그 돌부리에 발이 멎는다. 이리저리 주위를 둘러본다. 둘러보다 시선이 잠시 머무른 곳, 영화관…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약속이나 한 듯 다시 헤어졌다가 만나게 되는 것이 자명한 이치인 것을 보면 어디를 헤매고 다녀보아도 별수 없는가 보다. 다시 어쩔 수 없는 만남을 뒤로 하고 시선을 모아 감상할 프로를 찾는다. 그런데 들어가는 문은 또 같지 않더라. 이제는 둘도 하나가 되지 않더라. 이제는 더 이상 아쉬워할 시간도 없이 쓸쓸한 마음을 저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몸을 봉고차에 싣는다. 마음은 채울수록 공허함을 느끼면서 말이다. 하루 짧은 외출로 채울 마음은 밖에도 있지 않음을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은 더 잘 말해주고 있었다. 定慧社

# 상생죽필문想生竹筆文

혜소慧昭 | 사집

동안거라는 것을 확인이라도 하듯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첫눈이 내렸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을 만큼 많은 눈이 짧은 시간에 내리더니 이내 조계산 전체를 하얗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새하얗게 덮인 산들이 어느 정도 녹고 다시 흙 색깔을 보이는데도 제법 쌀쌀한 날씨가 겨울이란 것을 알리듯 추위를 느끼게 합니다.

세속의 모든 인연을 끊고 출가하여 강원이라는 곳에 엊그제 방부 들인 것 같은데 이제 절반을 넘긴다 생각하니 지난 세월이 너무나도 빠르기만 합니다.

많은 대중 스님들이 모여 사는 대중생활!

대중이 많이 생활하다 보니 이런 저런 일들을 겪고 헤쳐 나가는 것이 중물을 들이는 것 아닌가 생각하여 봅니다. 대중처소에서 생활함에 있어 자기 수행공부를 위해 정진하는 것을 바탕에 두고 우리 스님들이 자칫하면 감정적으로 메말라 다른 이에게 참견하기 싫어하고 충고받기도 싫어하는 경향이 흔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승가란 말이 조금은 멋 적을 정도로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을 하는 것을 보면 가끔 실망감을 느끼면서 저 또한 수행자로서 늘 깨어있는 정진과 하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만 하지 그렇게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다시 한 번 반성하여 봅니다.

승가 생활은 곧 대중생활인 것 같습니다.

대중생활을 함에 제 자신의 허물도 많이 알게 되고 많은 것을 반성하게 만들고 나름대로 표현력이 부족한 제 자신이 대중 속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발심자경문에 이런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인생난득人生難得이요 불법난봉佛法難逢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또한 어려우니 사람 몸 받아도 대장부 되기 어렵다 하는데 지금의 나는 겉으로는 장부요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러한 진리 속에 살고 있는 제 자신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행복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망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피와 시은을 입고 규칙적인 일정에서 살다보니 가끔 이 한 몸이 피곤하여 왜! 머리를 깎았는지 조차 망각하고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강원에 들어와 사집반 동안거를 보내고 있자니 이제는 슬슬 여유도 생겨 나태해지는 모습에 그저 하루 세끼 밥만 축내는 것은 아닌지 부끄러워집니다. 다시 한 번 마음 추스려 조그마한 원력이라도 세워 수행 정진하는데 큰 힘이 되어 후회 없는 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定慧社

*경전 한 구절*

# 집착

부처님께서 왕사성 죽림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제자들을 향해서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부디 과거를 생각하지도 말고
또한 미래를 원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모든 일에 대해서도
무엇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없음을 알라.
이렇게 지혜로운 성자의 길을 본받아
살아간다면 무엇 때문에 죽음을 근심하랴
나는 이제 죽음의 근심을 만나지 않거니
큰 고통과 재앙은 이미 끝났느니라.
이와 같이 부지런히 힘써
밤낮으로 게으르지 말지어다."

중아함경 제 43 ;온천림경:〈1-697중〉
Bhaddekarattasutta. 〈M.N, 111.p-233〉

# 돌탑

자용慈容 | 치문

일주문에 이르는 길 옆
큰 돌 의지한 채 수북이 쌓은 돌무덤, 늘어선 돌탑들
이리저리 업의 인연 속에 황망히 뒹굴다.
번뇌에 이끌려
누구의 손에 쥐어져 여기에서 쌓여있나.
또 다른 인연 속에서 홀연히 서서
불보살님!
이 돌탑 쌓은 공덕과
돌 하나에 번뇌와 돌 하나에 생사의
고를 여기에 두오니 부디 보소서.
오랫동안 선채로 기원하며
조아리는 합장 반배
낙엽집 나뭇가지 빈 그림자만이
돌탑 위에 끄덕이며
무심히 뒤돌아 길 따라 멀어지고
일주문 추녀 끝에 머무는 바람 따라
은은히 들려오는 관음전 부전스님 독경소리
관세음보살!

# 겨울 산골

종관宗觀 | 사집

뒷산의 소나무 흰 눈 모자를 쓰고

부는 바람에도 고요하며

앞 들의 보리는 흰 눈을 이불삼아

따뜻한 꿈꾸는데

길가는 나그네는 옷깃을 여미며

걸음을 재촉하는 해질녘

산골 오두막에서는 군불지피는

하얀 연기 피어오르고

방안의 촌로는 한가히 편안하네.

# 『인명입정리론因明入正理論』으로 본 불교논리학의 기본적 이해

혜도慧度 | 사교

## 서론

『인명입정리론因明入正理論』은 불교논리학을 얘기할 때 법칭法稱(Dharmakirti, C.E.600 ~ 680)의 『량평석量平釋』, 진나陳那(Dignāga, C.E.5C경)의 『집량론集量論』과 함께 반드시 언급되는 중요한 텍스트 중 하나이다. 원제는 범어로 『Nyāya-praveśaka』, 즉 『입정리론入正理論』인데 7세기경 현장玄裝스님이 한역하면서 인명因明이란 단어를 첨가했다고 한다.

인명이란 '어떤 주장, 견해에 대한 이유의 밝힘'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의 주장에 대한 정당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증명함을 의미한다. 인도에서 CE5세기에서 12세기에 걸쳐 발흥했던 인명학은 바로 이러한 인명에 대한 학문을 말하는 것인데 『인명입정리론因明入正理論』은 '인명을 통해 바른 이치로 들어가는 논서'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원저인 『Nyāya-praveśaka』, 즉 『입정리론』은 진나陳那의 제자인 천주보살天主菩薩(Śajkara-svāmin, C.E.5-6C경)의 저작이라고 하는데 여러 이설 중에는 진나陳那가 직접 저술했다는 주장도 있다.

원래 인명학은 논리학뿐만 아니라 량론量論으로 표현되는 바른 인식(正知)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한대 아우른다. 즉, 논리학과 인식론이 인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적 영역 안에 함께 포섭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명입정리론因明入正理論』은(이하 입정리론이라 칭함) 량론量論의 성격보다는 논리학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 이유는 이 논서의 저술자가 논적 또는 타파他派와 논쟁하는데 있어서 불교의 주장에 대한 증명과 타파의 주장에 대한 논박이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저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입정리론入正理論』의 전체분량의 대부분이 능립能立, 능파能破 및 사능립似能立, 사능파似能破로 분류되는 상대를 인식시키는 방법(悟他)에 할애되고 있으며 그 나머지 분량이 현량現量, 비량比量과 사현량似現量, 사비량似比量으로 분류되는 스스로 인식하는 방법(自悟)을 다루고 있다.

인명학은 논리학이라는 특성상 선禪중심의 한국불교계에서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분야이다. 중국불교의 영향이 강한 한국불교가 지닌 근본불교, 남방불교, 또는 티베트불교와의 변별성은 인명학에로의 시선이 제한적이었고 그에 대한 교계의 연구 역시 원효元曉스님의 『판비량론判比量論』을 제외하고는 시야에 포착되는 예가 극히 소수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유식학唯識學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불교학의 하나인 중관학中觀學을 깊이 천착穿鑿하기 위해서는 인명학은 반드시 공부해야할 영역이다. 중관학에서 논증을 세우는 형식이나 상대의 주장을 논파하는 방식 등이 인명학의 그것을 따르고 있기에 인명학에 대한 깊은 이해는 한결 수월하게 중관학이라는 고지를 넘어서게 한다.

본고에서는 부족하나마 『입정리론入正理論』으로 본 인명학의 기본적인 개념, 논증형식과 바른 논증에 대한 여러 조건들을 알아볼 것이다. 순서는, 먼저 자오自悟의 방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오타悟他의 방법과 그 세부사항인 능립能立과 삼지작법三支作法, 그리고 사능립似能立으로 얘기되는 그릇된 주장에 대한 규정을 알아본다.

『입정리론入正理論』에 기술되어 있는 논적의 주장을 논박하는 능파能破와 그릇된 논박을 의미하는 사능파似能破는 능립能立과 사능립似能立의 응용인 관계로 본고에서는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지 않겠다.

### 자오自悟의 방법

불교논리학의 체계를 세운 진나陳那에 의하면 존재 자신의 올바른 인식방법은 단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입정리론入正理論』은 진나의 체계를 따르면서 현량現量과 비량比量으로 스스로 인식하는 방법(自悟)을 분류한다. 그 이유는 인식대상(소량所量) 역시 두 가지이기 때문이다. 현량現量의 대상인 자상自相과 비량比量의 대상인 공상共相이 그것이다. 현량現量은 자상이라는 찰나적이고 감각적이며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대상을 통한 인식이다. 비량比量은 경험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이나 추리를 통해 구성된 언어, 또는 관념으로 이해되는 공상을 대상으로 한 인식이다. 예를 들자면 희노애락喜怒哀樂 등의 감정이나 불에 손을 데었을 때 뜨겁다고 느끼는 감각이나 먼 곳에 있는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이 어떤 것인지 추리나 사유가 필요 없이 직접 인식하는 것 등이 바로 자상을 대상으로 한 현량現量의 인식이다. 그에 비해 비량比量은 먼 산에 연기가 보일 때 그곳에 불이 있다고 아는 것과 같이 간접적이며 경험에 의존해 개념화 과정을 통한 추론적 인식이다. 사실 현량現量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든 비량比量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 오타悟他의 방법

『입정리론入正理論』에서는 상대를 인식시키는 방법(오타悟他)을 능립能立, 능파能破 및 사능립似能立, 사능파似能破의 네가지로 나눈다.

#### 능립能立

능립能立은 능증能證이라고도 하는데 종宗(주장), 인因(이유), 유喩(사례)의 형식을 갖춘 삼지작법三支作法을 통해 상대를 인식시키는 방법이다. 삼지작법三支作法은 서구 삼단논법三段論法의 인도식 모델인데 삼단논법三段論法이 대전제, 소전제, 결론의 형태로 논리를 전개하는데 반해 삼지작법三支作法은 삼단논법三段論法의 결론에 해당하는 종宗을 먼저 명제로 주장하고 소전제에 해당하는 이유를 적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단논법三段論法의 대전제에 해당하는 사례를 통해서 주장명제의 논리적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삼단논법三段論法

대전제 = 연기가 있는 곳에는 불이 있다.
소전제 = 저 산에 연기가 있다.
결　론 = 그러므로 저 산에 불이 있다.

삼지작법三支作法

宗 = 저 산에 불이 있다.
因 = 〔저 산에〕연기가 있기 때문에
喩 = 〔연기가 있는 곳에 불이 있다〕마치 아궁이와 같이.

그런데 이러한 삼지작법三支作法이 타당한 논증이 되려면 삼지작법三支作法을 이루는 종宗, 인因, 유喩의 세 명제가 각각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각각의 명제별 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종宗의 조건

『입정리론入正理論』은 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종宗이란 〔그 존재가〕 잘 알려진(極成) 유법有法으로서 〔역시 그 존재가〕 잘 알려진 능별能別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며, 〔능별能別은 그것이 유법有法에 존재한다고〕 증명되어 져야 할 것이다.'

말이 좀 어려운 듯 하지만 의미는 간단하다. '저 산에 불이 있다' 고 할 때 저 산은 불이라고 하는 법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유법有法(또한 소별所別이라고도 한다)이고, 불은 저 산을 다른 산과 구별해주는 한정자(능별能別)이다. 동시에 불은 소립법所立法(소증법所證法이라고

도 한다), 즉 불이 저 산에 있는지 없는지 의심을 품고 있는 상대방에게 증명되어져야 할 것, 바로 논증의 대상이다. 그러나 유법이든 법이든 '〔그 존재가〕 잘 알려진 것'(極成)이라는 한정어를 첨가한 것은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운 것, 예를 들자면 귀신이나 수미산 혹은 애초부터 그 존재가 인정될 수 없는 공화空華, 석녀石女의 아들 등은 논증의 주제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② 인因의 조건

종宗의 근거로 바른 인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특성을 구비해야 한다. 이것을 인因의 삼상三相이라고 하는데 삼지작법三支作法에서는 가장 중요시 되는 조건이다.

1) 변시종법성遍是宗法性
2) 동품정유성同品定有性
3) 이품변무성異品遍無性

먼저 첫째 변시종법성遍是宗法性은 바른 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因은 종宗의 법法, 즉 추론의 주제에 속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규정이다. 종법宗法이란 말은 '저 산에 불이 있다. 연기가 있기 때문에' 란 추론을 예로 들 경우 저 산에 대한 논리적 호칭이다.

연기가 바른 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연기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이어야만 하며, 다른 산이나 아궁이 같은 것에서 솟아오르는 연기여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변시종법성遍是宗法性이 인因과 논증의 주제인 종宗과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라면 동품정유성同品定有性과 이품변무성異品遍無性은 인因과 소립법所立法 사이의 '불변적不變的 공존관계共存關係' 를 나타낸다. 동품정유성同品定有性은 인因은 동품同品, 즉 같은 경우에만 하나 이상 존재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이품변무성異品遍無性은 인因은 이품, 다른 경우에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입정리론入正理論』은 동품과 이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소립법所立法을 공유함으로써 논증의 주제인 종宗과 같은 종류에 속하는 사물이 동품同品이다. 예를 들어 '소리는 무상하다' 를 논증할 경우 무상無常이란 소립법所立法을 가지는 물병 등이 동품同品이다.'

'이품異品이란 그 곳에 소립법所立法이 없는 〔따라서 종과 다른 류類의〕 사물이다. 〔위의 '소리는 무상하다' 에서 무상無常의 반대인〕 상常을 가진 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허공과 같이.'

'저 산에 불이 있다. 연기가 있기 때문에' 란 추론으로 예를 들자면, 소립법所立法(=소증所證)인 불이 있는 경우에 능립법能立法(=능증能證)인 연기가 있는 사례가 하나 이상 존재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추론의 경우 아궁이 같이 불이 있기에 연기가 나는 실례가 존재하기에 바른 인으로 성립되며 타당한 추론이 된다. 그렇지만 불이 있는데도 연기가 없는 숯불과 같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동품정유성同品定有性은 하나 이상만의 실례를 요구하기에 전술한 바와 같이 아궁이 한 경우만으로도 바른 인因의 조건은 성립된다. 이품변무성異品遍無性은 소립법所立法인 불이 없는 경우 연기가 있는 사례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어야만 바른 인因의 조건이 충족되어 타당한 추론이 성립된다는 규정이다. 불이 없는 경우 연기가 있는 사례는 절대로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추론도 바른 인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위의 동품同品, 이품異品의 정의와 관련되어 『입정리론入正理論』에 예로 등장하는 추론으로 다시 한 번 알아보자. 추론은 아래와 같다.

宗 = 소리는 무상無常하다.
因 = 소작所作된 것(만들어진 것)이기에
喩 = 마치 항아리와 같이.

이 추론도 동품정유성同品定有性과 이품변무성異品遍無性 모두를 만족시킨다. 무상한 것은 만들어진 것이다. 항아리는 만들어졌기에 무상하다. 그러나 천둥, 번개와

같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무상한 것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만들어진 항아리라는 하나의 실례로 동품정유성同品定有性은 충족된다. 또 이품변무성異品遍無性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상하지 않은 것 중, 다시 말해서 영원한 것 중 만들어진 것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역시 영원한 것 중 만들어 진 것은 없다. 당시 인도의 다수의 학파에게 영원한 것으로 인식되어 추론에 자주 등장 했던 허공과 같은 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품변무성異品遍無性을 충족시킨다. 그러므로 이 추론도 바른 인을 조건으로 갖추었기에 정당한 추론으로 성립된다.

③ 유喩의 조건

유喩는 인因과 소립법所立法의 관계를 나타내는 명제이다. 유喩는 동법유同法喩와 이법유異法喩로 나누어진다. '저 산에 불이 있다' 라는 추론으로 살펴보자.

宗 = 저 산에 불이 있다.
因 = 〔저 산에〕연기가 있기 때문에
喩 = 동법유同法喩 : 〔연기가 있는 곳에는 불이 있다〕. 마치 아궁이와 같이.
이법유異法喩 : 〔불이 없는 곳에는 연기가 없다〕. 마치 호수와 같이.

위의 경우와 같이 동법유同法喩는 인因이 동품同品에만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동법유同法喩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능립법能立法이 있는 곳에 소립법所立法이 있다는 양자의 긍정적肯定的 수반관계隨伴關係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동법유同法喩에서 능립能立과 소립의 제시 순서는 능립能立을 먼저 제시하고 소립을 수반한다. 위의 '〔연기가 있는(능립能立) 곳에는 불(소립)이 있다.(← 능립법能立法과 소립법의 긍정적 수반관계를 예시한다)〕. 마치 아궁이와 같이' 의 경우가 바로 동법유이다. 여기서 '연기가 있기 때문에' 라는 인은 불이라는 소립법所立法을 가지는 예例, 즉 동품同品에만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법유異法喩는 소립법所立法이 없는 경우, 즉 이품異品에는 인因이 전혀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역시 능립법能立法이 없는 곳에 소립법所立法이 없다는 양자의 부정적否定的 수반관계隨伴關係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법유異法喩에서 능립能立과 소립所立의 제시 순서는 소립을 먼저 제시하고 능립을 수반한다. 위의 예와 같이 '〔불이 없는 곳에는 연기가 없다.(← 능립법能立法과 소립법所立法의 부정적否定的 수반관계隨伴關係를 예시한다)〕.마치 호수와 같이' 가 이법유異法喩이다. 소립법인 불이 없는 경우, 즉 이품에는 인인 연기가 전혀 없다는 것을 호수와 같은 이품과 더불어 나타내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종·인·유宗·因·喩 삼지三支의 조건이 충족될 때 추론은 성립되는데 희랍의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비롯된 삼단논법과 순서의 배열만 조금 차이가 있지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양자의 논법은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삼단논법의 경우, 대전제인 명제는 실재와 무관하여도 옳다는 전제의 가정이 가능한, 순전히 논리적인 명제임에 비해, 삼지작법은 실제로 관찰, 경험된 것만을 다룬다. 앞에 동법유同法喩로 예를 든 아궁이라는 구체적 실례와 동일시되는 '연기가 있는 곳에는 불이 있다' 라는 추론과 같이 삼지작법은 추상적, 논리적 진술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점이 확연히 구분되는 점이다.

## 사능립似能立

사능립似能立은 『입정리론入正理論』의 절반 이상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三支(宗·因·喩)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論理的 오류誤謬로 인해 추론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입정리론入正理論』에서는 종宗의 오류(似宗)로 9가지, 인因의 오류(似因)로 14가지, 喩유의 오류(似喩) 10가지 등 모두 33가지를 오류로 들고 있다.

1) 사종似宗(종의 오류)

似宗(종의 오류)으로 총 9가지를 들고 있다.

① 현량상위現量相違 : 「소리는 들을 수 없다」 등의 현량에 어긋나는 주장(相違)을 세우는 경우.

② 비량상위比量相違 : 「물병은 영원하다」 등의 비량比量에 어긋나는 주장을 세우는 경우. 물병은 만들어진 것이기에 영원하지 않다.

③ 자교상위自教相違 : 자기가 소속된 학파와 어긋나는 주장을 세우는 경우. 불교에서는 '소리는 무상하다'라고 하는데 미망사 학파와 같이 '소리는 영원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경우이다.

④ 세간상위世間相違 : 세간世間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주장을 세우는 경우. 예를 들어 당시 인도에서는 해골을 더러운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사람의 해골은 깨끗하다'와 같이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경우다.

⑤ 자어상위自語相違 : '나의 어머니는 석녀石女다'와 같이 자기모순自己矛盾과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진 주장을 세우는 경우.

⑥ 능별불극성能別不極成 : 논적論敵이 인정하지 않는 능별能別, 즉 소립법所立法을 종宗으로 주장하는 경우. 예를 들어 모든 것의 생주이멸生住異滅을 믿는 불교도가 소리의 영원성을 믿는 삼키아학파에게 '소리는 소멸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⑦ 소별불극성所別不極成 : 논적에게 인정되지 않는 유법有法을 주장하는 경우. 예를 들어 아트만의 존재를 믿는 삼키아학파에서 무아론자無我論者인 불교도에게 '아뜨만(我)은 의식意識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⑧ 구불극성俱不極成 : 논적에게 인정되지 않는 유법有法인 소별小別과 능별能別을 주장으로 세우는 경우. 예를 들어 아트만을 인정하는 바이셰시카 학파에서 아트만도, 고유인固有因도 인정치 않는 불교도에게 '아트만이 즐거움 따위의 고유인固有因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⑨ 상부극성相符極成 : 유법有法과 소립법所立法을 상대가 인정하는바, 새삼스럽게 주장할 필요가 없는, 즉 입론立論 자체가 의미가 없는 주장을 세우는 경우. 예를 들어 '소리는 들린다'와 같은 경우이다.

2) 사인似因(인의 오류)

사인似因은 불성인不成因, 부정인不定因, 상위인相違因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지며 총 14가지의 오류가 있다. 각각 불성인 4가지, 부정인 6가지, 상위인 4가지의 오류로 나누어진다.

가) 불성인不成因 : 인因의 오류로 인해 추론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① 양구불성兩俱不成 : 논주論主와 논적論敵의 어느 입장에서 보더라도, 인因의 종법성宗法性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자면 '소리는 무상하다'라는 주장(宗)에 대해서 '보이는 것이므로'라는 양측 모두에게 인정되지 않는 인因을 세우는 경우를 말한다.

② 수일불성隨一不成 : 논주論主와 논적論敵, 어느 한 쪽이 인因의 종법성宗法性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한 쪽(隨一)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불교도가 소리가 만들어졌다는 것(所作性)을 인정하지 않는 미망사 학파에게 소리가 무상無常하다고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라고 인因을 세우는 경우를 말한다.

③ 유예불성猶豫不成 : 인因의 의미가 불확실하거나 존재가 의심스러운 경우. 예를 들어 '저 산에 불이 있다. 연기인지 안개인지 확실치 않지만 연기에 가까운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와 같은 인因을 세우는 경우를 말한다.

④ 소의불성所依不成 : 유법有法의 존재를 논주論主와 논적論敵 어느 한쪽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인因의 종법성宗法性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허공의 실체를 인정하는 바이셰시카 학파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불교 상좌부의 한 부파였던 경량부經量部에게 '허공은 실체로서 존재한다. 만물이 공에 의지하여 존재하고 있기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논적인 경량부는 실체로써의 허공을 인정하지 않기에 인因의 종법성은 성립되지 않는다.

나) 부정인不定因 : 동품정유성同品定有性과 이품변무성異品遍無性의 어느 하나를 인因이 결여缺如하고 있기

때문에 추론推論이 성립되지 못하는 오류를 말한다.

① 공부정共不定 : 인因이 동품同品과 이품異品에 모두 존재하므로 유법有法에 소립법所立法이 있음을 확정지을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소리는 영원하다.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추론을 세웠을 경우, 인因은 동품同品일 경우 허공의 예도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것인 이품일 경우 물병과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인因을 가지고서는 소리의 영원, 영원하지 않음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② 불공부정不共不定 : 공부정共不定과 반대로 인因이 동품과 이품 양측에서 배제되는 경우. 예를 들어 '소리는 영원하다. 청각의 대상이기 때문에' 라는 추론을 세울 경우 청각의 대상이 곧 소리 그 자체로서, 청각의 대상이라는 인因은 소리 이외의 영원한 것(동품同品)에도 무상한 것(이품異品)에도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유喩를 찾을 수 없어서 추론을 성립할 수 없는 경우이다.

③ 동품일분전이품변전부정同品一分轉異品遍轉不定(동분이전부정同分異全不定) : 인因이 동품의 일부와 이품의 전부에 존재하는 경우. 곧 인因이 동품정유성同品定有性과 이품변무성異品遍無性을 모두 결여缺如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모씨某氏는 여자다.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라는 추론을 세웠을 경우 이 인因은 여자의 일부에도 통하고 남자의 전체에도 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因에 의해서는 모씨某氏가 여자라는 추론을 성립할 수 없다.

④ 이품일분전동품변전부정異品一分轉同品遍轉不定(이분동전부정異分同全不定) : 인因이 이품의 일부와 동품의 전부에 존재하는 경우. 곧 인因이 이품변무성異品遍無性을 결여缺如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모씨某氏는 남자이다.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라는 추론을 세웠을 경우에 이 추론의 인因은 남자의 전체에 통하고는 있지만 여자의 일부에도 통하고 있기 때문에 모씨某氏가 남자라는 추론을 성립할 수 없다.

⑤ 구품일분전부정俱品一分轉不定(구분부정俱分不定) : 인因이 동품同品과 이품異品 모두에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곧 인因이 동품정유성同品定有性과 이품변무성異品遍無性을 모두 결여缺如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소리는 영원하다. 형체가 없기 때문에' 라는 추론을 세웠을 경우 이 추론의 인因인 '형체 없음' 은 동품同品의 일부인 허공에는 있으나 그 일부인 원자에는 없다. 또 이품異品의 일부인 물병에는 없으나 즐거움 같은 감정에는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도 추론을 성립할 수 없다.

⑥ 상위결정相違決定(부정不定) : 논주論主와 논적論敵의 쌍방이 각자 타당하나 주장의 일치를 보지 못해 어느 추론도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이른바 딜레마에 빠진 경우. '소리는 무상하다. 만들어진 것이므로. 만들어진 것은 무상하다. 마치 물병처럼' 이라는 추론을 지지했던 불교도, 바이셰시카 학파와 '소리는 영원하다. 청각의 대상이기 때문에. 청각의 대상인 것은 영원하다. 마치 성성聲性처럼' 이라는 추론을 지지했던 미망사학파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불교도, 바이셰시카 학파의 입장에서 소리의 무상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만들어진 것임' 이라는 인因은 소리의 영원성의 근거로 제시된 인因인 '청각의 대상인 것임' 과 동등하게 대치된다. 미망사학파의 경우, 소리는 어두운 방안에 등불을 켜면 원래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성성聲性으로 표현되는, 허공의 속성으로 존재하던 것이 현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말을 들을 때, 말이 가지고 있는 성성聲性이라는 속성이 영원한 것이듯 성성聲性의 유법有法인 소리도 영원하다고 주장했다.

다) 상위인相違因 : 인因이 종宗의, 즉 추론의 유법有法 혹은 소립법과 모순되어서 추론을 성립시키지 못함에도 인因으로 세우는 오류.

① 법자상상위인法自相相違因 : 인因이 소립법所立法 자체에 모순되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논주가 말한 인因이 추론을 성립하지 못하고 도리어 반대되는 추론을 성립하는 경우. 예를 들어 '너는 죽지 않는다. 생물生物인 까닭에' 라는 추론을 세운다면, 생물인 인因은 '죽지 않는다' 라는 추론의 소립법所立法과 모순되는

경우이다.

② 법차별상위인法差別相違因 : 인因이 소립법所立法이 가지는 속성에 반대되는 것을 증명시켜주는 경우. 다시 말해서 논주論主가 뜻한 바를 말하지 않고 애매한 말로써 추론을 세운 경우의 인. 예를 들어 만물이 생성되는 제일원인第一原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만물은 타他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자신이 자신을 만들지 못하는 까닭에' 라는 추론을 세울 경우, 논주는 '타他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는 종宗의 소립법所立法 속에 第一原因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제일원인 자신이 자신을 만들지 못한다면 제일원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일원인과 인因은 서로 모순되어 오류가 발생한다.

③ 유법자상상위인有法自相相違因 : 인因이 추론의 유법有法, 즉 종宗 자체와 모순되는 경우. 예를 들어 바이셰시카 학파가 '유성有性은 실체도 운동도 속성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유성有性)은 단 하나의 실체만을 가지며 운동도 속성에도 있기 때문에' 라고 추론을 세울 경우, 유성有性을 '가진 것' 으로 하고 '실체, 운동, 속성' 을 '가져지는 것' 으로 구별하고 있지만, '실체, 운동, 속성' 이 빠진 유성有性은 있을 수 없으므로, 이 인因은 종宗의 소립법과 모순되어 오류가 발생한다.

④ 유법차별상위인有法差別相違因 : 유법有法의 속성과 정반대의 사항이 성립되는 경우.

3) 사유似喩(실례의 오류)

사유似喩에는 동유同喩와 이유異喩가 있는데 각각 5가지가 있다.

가) 사동유似同喩

① 능립법불성能立法不成 : 능립, 인因의 존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다시 말해서, 동유同喩가 인因이 세운 종과는 관계가 있으나 인因(능립能立)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소리는 영원하다. 형체가 없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것은 영원하다〕. 마치 원자처럼' 이라는 추론을 세울 경우 원자가 영원하긴 하지만 형체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자를 능립能立으로 해서는 무형체성無形體性이 성립되지 않는다.

② 소립법불성所立(法)不成 : 동유同喩가 종과 인因을 동시에 성립해야 하는 것인데 동유가 인因을 성립할 조건처럼 종을 성립할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소리는 영원하다. 형체가 없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것은 영원하다〕. 마치 인식처럼' 이라는 추론을 세울 경우 인식이라는 유喩에는 형체가 없지만 소립법인 영원함은 존재하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동품으로 그릇되게 제시된 '인식' 은 사실 이품이다.

③ 구불성俱不成 : 능립법불성能立法不成과 소립법불성所立法不成을 합한 것인데 동유同喩가 인因에 관계되지 못하고 종에도 관계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소리는 영원하다. 형체가 없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것은 영원하다〕. 마치 물병처럼' 이라는 추론을 세울 경우 유喩로 제시된 물병엔 영원성(소립법)도 무형체성(능립법)도 없다.

④ 무합無合 : 동법유同法喩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능립법能立法이 있는 곳에 소립법所立法이 있다는 양자의 긍정적肯定的 수반관계隨伴關係가 명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리는 무상하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치 물병처럼' 이라는 추론을 세울 경우 '마치 물병처럼' 이라는 유를 들기 전 능립과 소립의 긍정적 수반관계인 〔만들어진 것은 무상하다〕라는 동품을 제시해야 하는데 결여되어 있다.

⑤ 도합倒合 : 능립能立과 소립所立의 긍정적肯定的 수반관계隨伴關係를 순서를 거꾸로 제시하여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소리는 무상하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무상하다〕 마치 물병처럼' 이라는 추론을 세울 경우 능립能立과 소립所立의 긍정적 수반관계인 〔만들어진 것은 무상하다〕를 〔무상한 것은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거꾸로 진술하는 경우의 오류이다.

나) 사이유似異喩

① 소립불견所立不遣 : 이품異品으로부터 소립所立이 부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소리는 영원하다. 형체가 없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은 형체가 없지 않다〕. 마치 원자처럼' 이라는 추론을 세울 경우 이품으로 제시된 원자에 소립所立인 영원성과 능립能立인 형체가 없음이 모두 배제되어야 하는데 원자에는 형체가 없음은 배제되었으나 영원성은 배제되지 않는 경우이기에 오류가 발생한다.

② 능립불견能立不遣 : 이품異品으로부터 능립能立이 부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소리는 영원하다. 형체가 없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은 형체가 없지 않다〕. 마치 운동처럼' 이라는 추론을 세울 경우 운동이라는 이품異品에는 소립인 영원성과 능립能立인 형체가 없음이 모두 배제되어야 하는데 소립所立인 영원성은 배제되어 있지만 운동은 형체가 없는 것이므로 능립能立인 형체 없음 배제되지 않는 경우의 오류이다.

③ 구불견俱不遣 : 이품異品으로부터 소립所立과 능립能立 모두가 배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소리는 영원하다. 형체가 없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은 형체가 없지 않다〕. 마치 허공처럼' 이라는 추론을 세울 경우 이품인 허공에는 소립所立인 영원성과 능립能立인 형체 없음이 배제될 때 바른 유喩인데 그 모두가 존재하므로 오류가 발생한다.

④ 불리不離 : 능립能立과 소립所立의 부정적否定的 수반관계隨伴關係를 예시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소리는 영원하다. 형체가 없기 때문에. 마치 물병처럼' 이라는 추론을 세울 경우 바른 이법유異法喩라면 마치 물병처럼 앞에 '〔영원하지 않은 것은 형체가 없지 않다〕' 라고 부정적 수반관계를 제시해야 하는데 결여되어 있는 경우의 오류이다.

⑤ 도이倒離 : 능립能立과 소립所立의 부정적否定的 수반관계隨伴關係의 순서를 거꾸로 제시하여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소리는 영원하다. 형체가 없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은 형체가 없지 않다〕. 마치 허공처럼' 이라는 추론을 세울 경우 능립能立과 소립所立의 부정적 수반관계인 〔영원하지 않은 것은 형체가 없지 않다〕를 〔형체가 없지 않은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거꾸로 진술하는 경우의 오류이다.

이상의 삼지작법의 오류론인 사능립33과는 올바르지 못한 논리적 과정을 철저히 분석, 강조했다는 점에서 서구의 논리학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서구 논리학이 연역법에 있어서의 오류와 귀납법적인 오류의 기본적 입장만을 견지했던데 비해 삼지작법의 오류론인 사능립33과는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인 정확성을 지니고 있다.

## 결론

지금까지 『인명입정리론因明入正理論』을 바탕으로 불교 논리학을 대략적으로 개괄해보았다. 중국의 선불교 전통이 온전하게 유지되는 한국의 불교는 '즉심즉불' 이요, '견성성불' 로 표현되는 부처의 계위로의 직입이라는 목적 때문에 언어라는 수단을 동원한 개념화, 사유, 논리,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부처님의 교설에 대한 이해, 견해, 그러므로 지니게 되는 해오解悟의 경지를 무의미하고 비효율적인, 비본질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또한 궁극의 깨달음을 거쳐 해탈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버려야할 어떤 것으로 구별한다. 물론 인간의 생각으로 구성된 모든 것들은 여실하게 존재하는 진리 당체와는 확연히 다른 것들이다. 금강경의 전편에 걸쳐 재생산되고 중론에서 용수보살이 해체하려는 대상은 바로 그것들의 반복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 열반의 바다로 진입하려는 발걸음을 내딛은 중생들에게 그 가르침에 대한 바른 견해(정견正見)의 보지保持함은 식識이라는 영역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식識은 주체적인 인식의 판단이며 언어를 통해서 논리와 개념을 정립한다. 논리와 개념의 정립은 또 올바른 인식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것의 인도식 이해가 바로 정지正知(바른 인식)였다. 그래서 이

정지를 그 획득 대상으로 설정, 탐구했던 량론量論은 인식론이었지만, 정지를 상대에게 바르게 전달해야 한다는 방법론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논리학(인명학)이라는 영역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인도불교의 오랜 전통이었던 논리, 분석, 합리 이러한 개념들을 부정해왔다. 그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선수행을 통한 열반으로의 직입' 이라는 수행풍토로 부터 비롯된다. 간화선이 지止와 관觀을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일괄타결' 적 요소를 지님으로 인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도그마가 될 때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멀어진다. 부정해야 할, 해소해야 할, 그리고 깨부수어 없애야 할 변제邊際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인도불교의 중론, 인명학 등의 고도의 치열하고 합리적인 논리전개를 통한 부처님이 주창했던 교설의 증명은 지금 시대의 불교를 위해서 더욱 필요한 접근자세는 아닐까 생각해 본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바탕의 교육을 받고 자라는 오늘날의 세대들에게 직관만을 강조하는 방식의 불교는 지나치게 신비적이어서 비현실적일 수 있다. 그러한 자세는 철저히 현실에 기대어 법을 설했던 붓다의 자세와는 철저히 대극의 위치에 서있는 꼴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완전히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가르침에 대해 듣고(聞), 깊은 숙고를 통해 그것이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점을 자각한 후에(思), 그 가르침이 몸에 배어야 한다(修). 그 가르침이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체화되어 증득(修)되기 전 단계까지는 사유를 통한 해오解悟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금강경金剛經에서 말한 '항하사만큼의 보시공덕도 사구게四句偈를 수지 독송함만 못하다' 는 의미는 단순히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해오하여 공성空性에 대한 정견을 세운 다음, 끊임없이 자신으로부터 관觀하여 어느 틈에 훈습하게 함이 성불의 절대적 전제조건이라는 의미는 아닐까.

인도의 불교가 고스란히 이식된 티벳의 불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는 저변에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논리적 접근을 통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불자들에게 합리적으로 법을 전달해 줄 수 있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만은 없으리라.

어딘가 활기를 잃어버린 듯한 한국의 불교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철저히 계행을 지키며 수행가풍을 유지하는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절대적으로 이념화된 참선수행의 전통 위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치밀한 논리로 무장된 인명학, 중론 등의 논서를 통한 불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정초定礎되어야 하지는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며 이상으로 졸고를 마친다. 定慧社

**참고문헌**


1. 김성철 역 범한대역 『인명입정리론』(http://bud-i.net/~kimsch/mettaframe.htm)
2. 이지수 『인명입정리론의 변증적 방법』(동국대학교,1999)
3. 김인종 『인명논리의 삼지작법에 관한 연구』(원광대대학원,1985)
4. 김태완 『신입명 연구』(부산대학교 철학과)
5. 사이구사 미쓰요시 『인식학, 논리학』(불교시대사,1995)
6. 김성철 『중관사상』(민족사,2006)
7. 김성철 『인도불교의 사상과 역사, 제 42강 인의 삼상과 인의 오류』(불교TV, 2002)

# 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편집부

10월 11일 쌍계사와 축구경기

이읍 경기장에서 쌍계사 학인스님들과 축구  한판이 벌어졌습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에 축구하기 더없이 좋은날입니다. 승부를 떠나 쌍계사 학인스님들과 친분을 나눌 수 있었던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10월19일 ~ 20일 전국강원연합 학인대회

전국 강원연합 학인대회가 경주 불국사에서 열렸습니다. 염불대회를 시작으로 서예·역경·법고대회·축구대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역경에서는 송광사의 치문반 스님이 전국 1등을 했답니다.

10월 23일 효봉선사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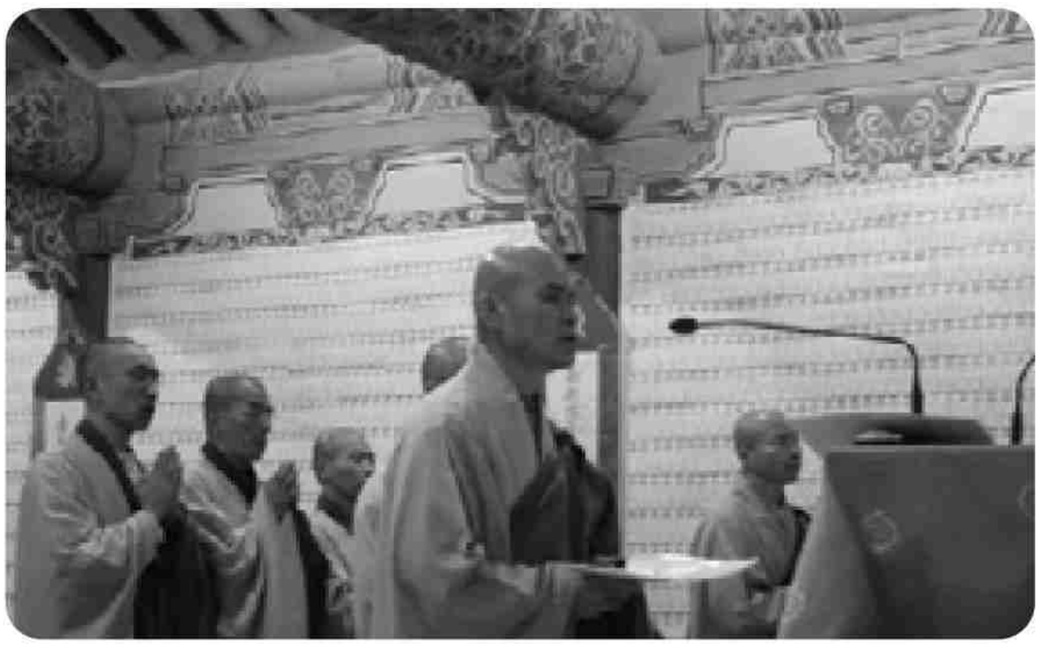
무자無字 화두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효봉 스님을 모시는 날입니다. 후학들에게 한결같은 용맹정진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가르침을 받들어 정진행을 닦아야겠습니다.

10월 30일 풍암영각 다례재

회주스님의 집전으로 사중 대중스님들의 축원과 함께 풍암영각에서 역대조사스님들을 모시는 가을산철 다례재가 여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1월 8일~12월 27일 금강산림법회

두 번째를 맞이하는 금강산림법회는 방장스님을 시작으로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끝으로 봉행되었습니다.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덕대승의 설법을 청하는 전국 재가 불자님들의 발길로 분주했던 법회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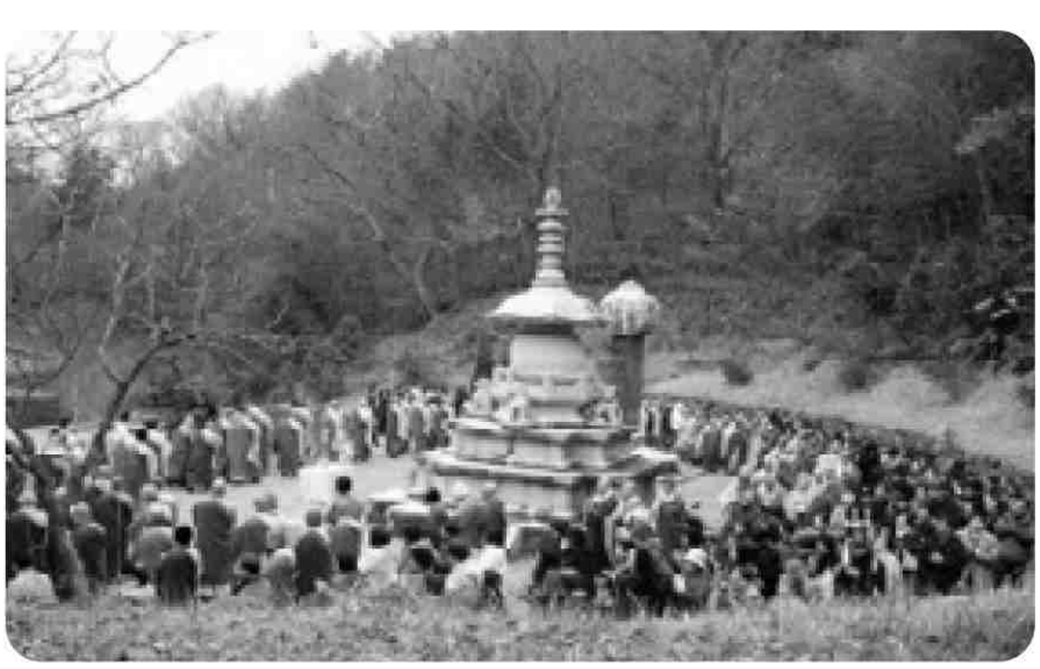


12월 21일 동지새알울력

동지와 함께 모든 일체액난이 소멸되도록 염원해봅니다. 큰방에서 동글동글 새알을 빚으며 나누는 담소들이 정겹습니다. 사부대중들과 함께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는 날입니다.

1월 1일 구산스님 24주기 추모법회

송광사의 초대방장이셨던 구산스님의 기재일 입니다. 발우공양부터 울력까지 모든 것을 몸소 실천하셨던 스님의 발자취를 기리며 사리탑에 헌향하옵니다.



1월 18일 전남도청 신년하례법회

새로 이전한 전남도청청사에서 광주 · 전남지역 큰 스님들과 신도 등 800여 명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전남의 발전과 기원을 염원하는 신년법회가 있었습니다.

1월 22일~23일 동안거 특강

세계불교학동향에 대해서 동국대학교 안성두 교수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한국불교학의 입지를 생각하는 학인스님들의 눈빛이 자못 진지합니다.

1월 29~2월 5일 대교반 졸업여행

4년 간의 구도여행을 마치고 강원을 떠나는 선배 스님들. 그간의 노고를 부처님 성지를 순례하는 것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강원의 생활을 거름삼아 훌륭한 수행자로 정진하기를 빌어봅니다.

1월 30일 동안거 원족산행

백암산의 백양사 백학봉으로 학인스님들이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몰아치는 눈보라 사이로 가파른 산등성을 타고서 봉우리에 서니 보이는 것은 구름과 산봉우리뿐이라 마치 신선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 소년소녀가장 후원 안내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 가난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어린 가장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고마운 마음들이 살아 숨쉬고 있고, 이 세상은 함께 부둥켜안고
살 가치가 있음을 그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송광사 강원에서는
꿋꿋하게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우체국 온라인: 503490-01-001097 예금주 : 소년소녀(황소연)
농협 온라인: 810-02-120594 예금주 : 박채균
연락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우편번호 540-930) 송광사 강원 혜강스님 061)755-5302

## 「정혜사」 후원자를 모십니다

「정혜사」는 송광사 강원의 소식지입니다. 기획, 원고작성, 사진촬영, 편집에서 출판 및 발송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작업을 학인스님들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사」는 비영리출판물로써 발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보시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송광사 강원과 인연을 함께 하며 여러 스님들 및 불자님들의 호평과 격려, 그리고 질타와 충고 속에서 출판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부 사정상 「정혜사」 발간 기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정혜사」는 더욱 더 여법하고 순수한 모습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후원안내를 참조하시고 편집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혜사」 誌를 후원해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번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안내** : 송광사 강원 편집실 ☎ 061)755-5302
**우체국 온라인** : 500660-01-001029 예금주(송광사 정혜사)

## 강원 후원내역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보시 하셨습니다**

광주 무각사·원각사·송광사강원 총동문회·창원 길상사·금강원·순천대학교 총장·부산 관음사·화순 운주사·구산문도회·광주 증심사·대구 윤다회·대구 선본사·선원 월탄스님·선원 혜덕스님·교무스님 화성 흥법사·김수경님·백양사 원광스님

**대중공양 동참하셨습니다**

송광사선원 유나스님·약사암·원경 강사스님·원주스님·선원 혜덕스님·강원 대교반·강원 입승스님·대교반 연옥스님·사교반 혜산스님·사집반 종관스님·성남 관음행님

**「정혜사」誌 후원 감사합니다**

송광사 선원 유나스님·운주사 주지스님·율원 도암 강사스님·광주 원각사 주지스님·김기찬님·이경주님·곽미숙님·최병헌님·최선희님·안화순님·김수경님·허경님·홍지영님·정영희님

**구독안내**

주소 변경이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우)540-93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강원 「정혜사」 편집실
전화 (061)755-5302

## 편집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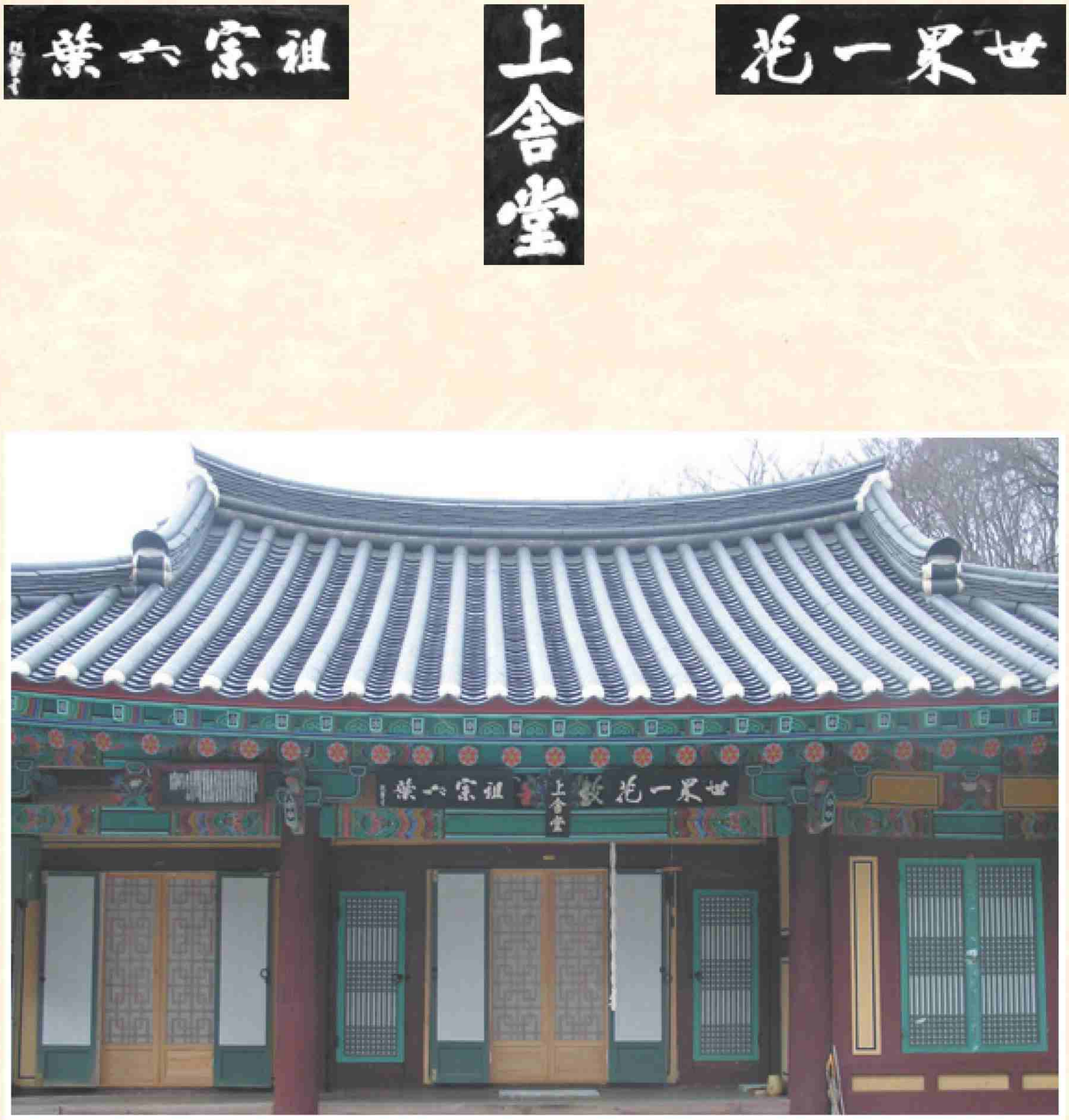
• 작년 부터 같이 해오던 한 유능한 실력을 갖춘 편집위원이 몸이 좋지 않아 정혜사를 떠났다. 그래서인지 이 책을 만들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감이 든다.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만들었기에 그 도반에게 이 책을 당당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 우여곡절 속에 소식지 한 권이 또 완성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동안거 한철을 컴퓨터 자판과 함께 보낸 시간이 보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원고를 제출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병술년 동안거 결제 송광사 대중

이 공부는 충신과 효자와 열녀라야 할 수 있습니다.
충신과 효자와 열녀가 아니면 흉내도 낼 수 없는 게 이 공부입니다.
여러분은 일등 출가자들입니다.
여래의 공부를 하기 위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모임에 참여한 이상,
일체의 다른 생각이 없이 공부를 지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 버리십시오.
지극히 쉴 대로 쉬어서 조금도 남김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 방장스님 법어 中 –




첫새벽 목어木魚 울 제 죽비소리 드높으고
이따금 경책警策소리 어제런 듯 새로웁네
그 왕자 닭든 시절을 딸코 싶은 오늘아

–「인암시조선」 송광사 순례시조 가운데서 –

**상사당上舍堂** 상사당은 현재 송광사 방장스님의 처소로 이용 되나 예전에는 선원이었다. 시조 마지막 행의 '닭든' 은 '닦던' 의 옛 표현이다.